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가족 여러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간 9월의 캠퍼스, 울곡관과 노천극장을 잇는 오솔길의 풍경

Letter from President

당신이 꿈꾸는 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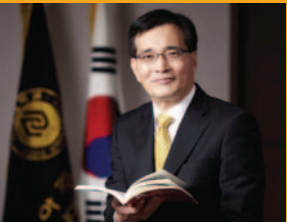
사람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여러 생각이 흐르는 계절, 가을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앞에 아련함도 있을 것이고, 높아진 하늘 아래 흐릿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겠지요. 졸업을 앞둔 학생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근거림,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인 여러분, 올해 아주대학교 광고는 보셨는지요? '아주, 멋진 신세계'란 타이틀로 젊음이 꿈꾸는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전형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주동산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몰입하여 창조의 바탕을 마련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주인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좌충우돌 부대끼며 온갖 장애물을 넘어서는 인물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꿈꾸는 사람에게 도전이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순간부터 불편하고 귀찮고 쓰리고 상처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잡는 순간,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인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신세계는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보람된 내일을 꿈꾼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행동양식 즉 관습이란 이름으로 창조를 가로막던 모든 것을 잊어버립시다. 여러분의 신세계가 펼쳐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총장__안재환

안재환



Contents

Special Theme__

아주에 보내는 희망편지	05
좌담에서의 말말말	12

Story of Ajou__

Vision	청년 창업, 만만히 보지마라	14
Story	아주대학교 나무이야기	18
Research	박테리아를 이용한 차세대 충전지 개발	22
Focus	BK21 플러스 사업단	24
Prof. Column	이교범 교수	30
Passion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34
Photo Sketch	International Summer School	36
Zoom In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기관으로 선정	40
Alumni Story	배우 김지훈	44
Thank Donor	강래성 세원 EPC 회장	46
Admission Column	한호 입학처장	54

Ajou Uinv. News__

Event	16
People	26
Award&Selection	32
그외소식	38
Medical Center	42
Donation News	48

Ajou University Magazine _ 2013 Autumn_Vol.7

아주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아주대학교 사람들"은 <http://webzine.ajou.ac.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_ 2013년 10월 15일 / 발행인_ 안재환 / 편집인_ 노학래 / 발행처_ 아주대학교 홍보실 031 • 219 • 2919 /
기획 및 디자인_ 트레이드인터내셔널 / 사진_ 스튜디오 보브

우리가 꿈꾸는 아주는...



‘당신에게 아주대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아 '아주대학교 사람들'이 교수와 직원,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물었다. 아주에서의 생활 그리고 꿈과 희망을 담아 보내온 아주인 21인의 희망편지를 소개한다.

정리 이 슴 (홍보실)



제1회 학장배 탁구대회에서 탁구경기를 벌이고 있는 아주인들의 모습. 별다른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 탁구대회는 재미있는 이벤트였다.



제2회 불어 응변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한불 문화협정으로 탄생한 아주대학교는 개교 초기 프랑스어 교육에 힘을 쏟았다.



제2회 원천제에서 벌어진 농구시합. 지금은 인조 잔디구장으로 변모한 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를 벌였다.



74년 프랑스 교수를 위한 숙소 모습. 개교 초기 아주대학교는 당시로서는 보기드물게 매우 국제화된 학교였다. 이 건물들은 2010년 모두 철거됐다.



78년, 외국인 교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교수진의 모습.



83년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 걸린 정문에서 원천관까지의 길. 가요제, 포크댄스, 탁구대회 등이 열렸다.

윤정용 (국제협력팀 과장)

내가 꿈꾸는 아주는 ‘구글’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 하나가 바로 구글 (Google)이다. 나는 아주대학교가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간절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한다. 나날이 발전해갈 아주대학교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춘들이 함께 꿈꾸고 사색하고 도전하기를 오늘도 염원한다.

이선이 교수 (사회학과)

나에게 아주는 ‘연극무대’다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뜻하지 않게 맡게 되는 역할들이 있었다. 예컨대 사회봉사, 성폭력 대처, 여성 리더십 개발, 아주강좌 운영 등과 관련된 일들이 그런 것이었다. 이 일들은 모두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전문지식과 딱히 연관성이 없는, 한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게 된 일들이어서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캐릭터 연기를 통해 점차 훌륭한 배우로 커가듯 나도 아주대학교에서 맡았던 역할들을 통해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종종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전환 동문 (기계공학 84)

나에게 아주는 ‘바운스(Bounce)’다

‘아주대학교’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대중매체에서 ‘아주’라는 글자만 보이면 그것이 혹시 모교에 대한 기사는 아닐까 하고 두근두근하며 다시 들여다보기를 반복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교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아주’라는 단어가 스칠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젊기에 더욱 역동적이고 더 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이름, 아주는 나에게 바운스다.

신경철 (연구팀장)

나에게 아주는 ‘옹달샘’이다

수업시간 반바지, 슬리퍼, 모자, 껌... 김철 교수님의 강속구! 지우개가 날아온다. 능력을 키우기 전에 인성을 우선시하라는 교수님의 가르침, 이러한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오늘의 내가, 학교가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한다. 나에게 아주는 삶의 터전이기 이전에 꿈을 키우는 요람이다. 아주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 수학공식과 같은 의미다. 아주는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고자 했던 나의 갈증을 해소해준,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다.

박만규 교수 (불문과)

나에게 아주는 ‘바퀴의 축’이다

바퀴의 축은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바퀴를 돌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다. 아주는 내 마음 한가운데 말없이 있지만 항상 나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다. 축이 없다면 바퀴가 굴러갈 수 없듯이 아주가 없다면 나 또한 살아가기 어렵다. 작은 바퀴의 축이 커다란 자동차를 움직이듯이 ‘아주’라는 두 글자가 모든 아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그리하여 아주대학교가 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최상돈 교수 (분자과학기술학과)

나에게 아주는 ‘집 밖의 또 다른 집’이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대전 등을 다녀오다 월드컵경기장을 지나 좌회전을 하면 긴장됐던 몸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린다. 집에 다 왔다는 신호다. 유신고등학교를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보인다. 저마다 개성 있는 옷차림과 걸음걸이로 횡단보도를 건넌다. ‘우리 애들이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흐른다. 신촌이나 신림동에서 만난 아이들보다 훨씬 듬직하고 예쁘다. 이 아이들이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다. 매일 학교에 들어서며 나는 또 다른 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난다. 사랑한다, 아주인!

노승찬 동문 (기계공학과 79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호숫한 미소’다

아주대학교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운택하게 해준 화수분이다. 내 전공은 기계공학이었지만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국제화 수준이 높았던 아주대학교의 학풍 덕에 나는 3년간 영문과에서 영어회화를 수강했다. 그 덕에 엔지니어로서는 드물게 영어에 자신이 생겼고 이후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모든 후배들이 졸업 후 어느 순간 아주대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릴 때, 입가에 항상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기를.

이상리 (교육대학원 2013년 입학)

내가 꿈꾸는 아주는 ‘**꿈 너머의 꿈**’이다

요즘 학생들은 스펙 쌓기와 취업으로 너무도 바쁘다. 대학 공부도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기는 듯하다. 나는 아주대학교가 그러한 세태를 넘어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꿈의 터전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정되고 좋은 직업, 그것을 넘어 젊은이들에게 꿈 너머의 꿈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심정철 동문 (전자 84)

나에게 아주는 ‘**나무**’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올라와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를 만났고, 졸업 후에도 힘들고 외로울 때 그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아주대학교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주었다. 졸업 후 22년 만에 자전거로 돌아본 아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로 그것이었다.

이범진 교수 (약학과)

내가 꿈꾸는 아주는 ‘**타 대학의 롤 모델**’이다

아주대학교는 봄이면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다채롭게 물드는 멋진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의학, 약학 등의 학문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 나는 이런 아주대학교가 교육과 연구에서 다른 대학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을 꿈꾼다.

권세영 동문 (국문과 97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오아시스**’다

요즘 많은 학우들은 대학을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쯤으로만 여긴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생활이란 선후배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각자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후배들이 아주대학교라는 ‘오아시스’에서 기른 경험과 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키우기를, 그럼으로써 아주대학교가 아주인만의 오아시스가 아닌 지역 사회, 한국 그리고 세계인들의 지덕(知德)의 오아시스가 되길 기원한다.



73년. 개교 당시의 학생 식당 모습. 현재의 구 학생회관 건물과 유사하지만 단층으로 되어 있다.



76년_1975년 준공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83년_도서관 전경. 중앙도서관은 1984년 4월 준공됐다.



83년_시청각실에서 영어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



86년. 아주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필수관문. 논술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



91년. 부속병원 기공 및 의학관 준공식. 아주대학교의대는 1988년 첫 신입생을 받았다.

진경석 동문 (토목설계공학과 94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최고**’라는 이름이다

아주인들이 훌륭한 인성과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이런 수식어를 얻게 된다면 동문과 재학생의 자부심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대학’이라는 수식어를 넘고 ‘대한민국’이라는 틀 역시 뛰어넘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날이 오리라.

김현수 (미디어학과 09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좋은 명함**’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소개할 때 명함을 주고받곤 한다. 명함에 적혀 있는 단체나 회사가 누구나 알아주는 훌륭한 곳이라면 우쭐하고 자랑스럽다. 아주대학교가 내게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건넬 수 있는 좋은 명함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김경주 (미디어학과 12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스테디셀러**’다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처럼 아주대학교도 꾸준히 사랑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아주인이 힘을 모아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86년_제41회 전국축구선수권 대회 결승전에 오른 아주대 축구부. 축구부는 1982년 창단됐다.



92년_원천대동제를 달군 마당놀이. 원천관 앞 잔디밭은 학생들이 모여드는 광장의 역할을 했다.



83년_노천극장에서 진행된 졸업식. 졸업생들이 중앙에 모여있고 친지들이 관객석을 가득 채웠다.

정재윤 (행정학과 09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실수의 기쁨’이다

내가 꿈꾸는 아주는 실수하는 기쁨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에도 죽을 듯 괴로워한다. 하지만 실수는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이 실수했을 때의 괴로움보다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민규 (미디어학과 09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고전’이다

아주대학교의 역사는 이제 40년이다. 짧다면 짧지만 그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고 또 다른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위대한 고전처럼 아주대학교도 오래도록 인정받는 학교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임군진 (산학기획팀 과장)

나에게 아주는 ‘부처님 도량’이다

1992년부터 지켜 본 아주대학교는 나에게 ‘부처님의 도량’이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도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수많은 교직원, 학생들과의 인연과 과업에 고맙고 감사하다. 나의 일터로서의 아주도량을 맑게 하는 일을 지속하면 자연스레 감응하는 기운이 있으려니, 마음을 기울이면 기울인 만큼 공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아주대학교와 일체감을 가지고 공덕을 더욱 많이 쌓아나가려 한다.

김지훈 (구매관재팀 직원)

나에게 아주는 ‘새로운 희망’이다

졸업 후 사회에 나와 한계를 체감하고 좌절하던 나,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내게 멋진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주었고 앞으로 내 삶의 궤적에 대해 더욱 고민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나처럼 아주와 함께 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근욱 (경영학과 11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무지개’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 빛이 고유의 색을 온전히 발하고 또 조화를 이뤄야만 아름답다. 아주대학교의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무지개처럼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서로 소통하며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꾼다.



81년_총장 취임식. 81년 8월에 열린 초대 총장 이웅희 박사의 취임식 모습.



85년_학부모 방문의 날. 지금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았던 시절, 자녀가 다니는 대학을 둘러보고자 많은 학부모가 캠퍼스를 찾았다.



남제관과 구 학생회관 건물의 예전 모습.

정혜진 (문화콘텐츠학과 13학번)

내가 꿈꾸는 아주는 ‘시작’이다

아주대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며 나의 재능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중이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내 꿈의 실마리 역시 찾게 되었다. 앞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나의 꿈을 찾아준 아주는, 스무살 나에게 ‘시작’이다. 첫발을 디딜 때는 어렵지만 방향이 정해진 다음부터의 여정은 순조롭기 마련이다. 아주대학교도 다음 발걸음을 쭉 이어가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꿈꾼다.

장주아 (교원팀 과장)

나에게 아주는 ‘소중한 인연’이다

1992년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그와 10년간 교제한 뒤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귀여운 아이들을 오순도순 키우며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모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존경하고 아끼는 선배들과 만나 일하고 있는 나는 학과 친구들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살고 있다. 좋은 인연으로 인해 삶은 풍성하고 행복해진다. 멀리만 보지 말고 내 주변을 둘러보면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주’가 있었기에 나에게 아주는 소중한 인연이다.

박수택 (경영 78, SBS 환경전문기자)



안재환 (총장)



김 철 (前 총장 직무대행)



이성낙 (前 의무부총장)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민경오 (LG전자 전무)



이교범 (전자 91, 전자공학과 교수)



신두철 (불문 79, ECCO코리아/JD Plus 대표)



좌담에서의 말말말

개교 40주년을 맞아 ‘아주대학교 사람들’은 2013년 신년호 <아주대학교 개교 40년, 그 유산과 가치를 되짚다>와 봄호 <아주를 바라보는 주목할 시선>, 여름호 <‘아주’라는 이름의 자부심> 좌담을 통해 아주대학교의 어제와 오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단해봤다. 이번 호에서는 개교 40주년 특집을 마무리하면서 좌담에서 나왔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아주대학교가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짚어보기로 한다.

정리 이 슌 (홍보실)

박수택__ 경영 78, SBS 환경전문기자

나는 아주대학교가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때에 학교생활을 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대학이 아니었기에 우리 학생들 한명 한명이 함께 학교의 뿌리와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격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일찍이 적극성과 책임감을 몸에 익히게 됐다. **4학기 동안 프랑스어를 필수로 공부하도록 하는 등 다른 대학 친구들에 비해 유럽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됐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자각이 빨리 생겼다.

안재환__ 총장

1987년 아주대학교에 합류했는데 당시 **‘매우 젊고 역동적인 대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실력과 지성을 갖춘 교수들도 많았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 교수들이 학교에 대해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는 점이다. 수업이 끝난 뒤나 주말에도 모이기만 하면 학교 이야기를 하느라 바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다.

김 철__ 前 총장 직무대행

아주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교육 중심의 대학’을 구현한 것에 있다. 초창기부터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카이스트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 대학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좋은 교육을 위한 교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열망이 합쳐진 결과였다. 당시 아주의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킨다’라는 생각이 강했다. 공부는 학생이 알아서 하고, 교수들은 그 길을 이끌어 준다는 얘기다.

이성낙__ 前 의무부총장

개척정신과 미래지향적 사고가 아주대학교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의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 의대 교육에서 아쉽고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다.** 지금은 많은 대학이 오히려 우리 의과대학을 본받아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의학과 인문학의 결합 등이 그것이다.

강홍준__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제는 **아주대학교만의 정체성이 나올 때가 됐다.** ‘아주정신’을 확립하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주정신’으로 무장한 구성원들이 모두 아주대학교의 홍보요원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처음에는 구성원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아주정신’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고 또 학생들 마음에 심어져서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대학교 동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다.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 다른 학교 대학원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정신’이 만들어지면 동문들도 함께 열광할 수 있다.

민경오__ LG전자 전무

내가 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아주대 출신 엔지니어들은 무척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부서 간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 있는 엔지니어, 사업 마인드를 갖춘 엔지니어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은 남들과 다른 무엇,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도 아주대학교 출신이 전체의 3% 정도 된다. 하지만 그들 간의 결속력이 약해 누가 아주대학교 출신인지도 모르고 있다. 출신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교범__ 전자 91, 전자공학과 교수

내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서울 유명 대학이나 카이스트에도 합격했지만 아주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이 **모교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을 보며 후배들도 자신감을 얻는다.**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능력은 충분히 훌륭하다. 지금 우리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롤 모델이고 비전이다.

신두철__ 불문 79, ECCO코리아/JD Plus 대표

그저 남들처럼 대기업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세우고 스펙 경쟁만 벌이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다. 모두가 대기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투철한 개척정신으로 인생을 일궈온 아주대학교 선배들에게는 그런 DNA가 있었다.** 선배들이 후배들의 손을 잡고 이런 아주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청년 창업, 만만히 보지 마라!

“요즘 청년 창업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정책적 지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을 부추기는 건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은 보통의 정신력과 내공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 바로 창업에 뛰어들어 성공하길만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글 이 숲 (홍보실)

‘청년백수 100만 시대’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 탓에 ‘창업’에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판 주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를 키우겠다며 정부와 기업들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요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주목해왔던 아주대학교 변광준 교수(정보컴퓨터공학과)는 청년 창업에 대해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함부로 창업에 나서지 말라’는 것. 신생 벤처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K-start up)’ 프로그램을 주도해온 그의 경험과 식견을 고려할 때 이는 꽤 주목할 만한 조언이다.

K스타트업*이란 웹·모바일·게임 등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을 선발, 초기 투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자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 여름 2기 지원자 11개 업체를 선발해 유튜브,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출신의 멘토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창업 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변광준 교수는 ‘K스타트업’ 참여 기업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등의 전 과정에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앱센터가 주관하고 구글, SK플래닛,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지원한다.

변 교수는 ‘K스타트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그동안 230여 개의 팀을 면접했다. 그리고 올 초 선발한 9개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준비 작업을 함께 해왔다. 그 치열하고도 험난한 과정에서 변 교수는 ‘경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분야 창업에 나선 젊은이들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련 업무를 하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뜻을 가지고 퇴사해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잘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 창업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특정 벤처가 개발한 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벤처를 꾸려가는 팀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기술력을 우선시합니다. 회사를 운영해본 사람이면 좋고, 회사를 꾸리면서 성공도 맛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변 교수는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쉬이 창업을 권하지 않는다. 창업을 하는 순간 바로 낭떠러지 위에 서는 것이라고 할 만큼 강한 정신력과 열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버텨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을 위해 갖춰야 할 기술력을 현재와 같은 취업과 진학 위주의 대학 커리큘럼에서는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대학생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매일 매일 주말도 없이 개발에



매달려서 수없이 만들어보고, 고민하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가라.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스스로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만 창업을 할 만한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경험을 쌓아가다보면 때가 왔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혼자보다는 함께, 즉 좋은 사람들과 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적용해보는 게 필요하다. 국내와 해외 시장의 경계가 없는 시대이기에 내 고객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필수.

변 교수는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찾아보기 어렵던 시절인 지난 2007년, 페이스북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과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직접 실험에 나서기도 했던 인터넷 서비스 분야 전문가다. 당시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체감했다. 다만 단순하고 쉬운 서비스에 끌리는 해외 이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에 적용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 벤처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과제다.

출발부터 해외시장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변 교수는 젊은이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적은 투자금액에 자신들의 비전과 사업 규모를 맞추어 타협해가는 한국 벤처기업들의 생태계가 소프트웨어 분야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팀에게는 그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큰 그림을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지요. 이렇게 성장한 회사가 관련 대기업에 인수되고 그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도 됩니다. 한 주에 하나씩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됐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창업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겠지요.”

* 자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

변광준 —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외국인 학생 · 교원 위한
국제학사 첫 삽



8월6일 오전 아주대학교 기숙사 동측 주차장에서 국제학사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재환 총장과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각 처장과 학장들, 김호섭 교수회 의장과 유희석 아주대병원장, 허무관 총학생회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외부 인사로는 정재영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와 김성대 서울건축 대표가 참석했다. 김민구 기획처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국제학사 기공식은 안재환 총장의 기념사와 시삽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재환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제학사 신축은 ‘아주비전2023’ 글로벌 캠퍼스 구축 전략의 일환”이라며 “국제학사가 완공되면 국내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는 글로벌 캠퍼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학사는 지상 9층 규모(연면적 3054평, 건축면적 367평)의 기숙사 건물이며 학생과 외국인 교원 등 총 4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는 2015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2013학년도 전체교수 워크숍 열려



2013 학년도 아주대학교 전체교수 워크숍이 6월25~26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 자리잡은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됐다.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제 발표와 단과대학별 분임토의, 총장과의 대화 등이 진행됐다. 안재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과 연구로 바쁜 교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단과대학 차원의 교류를 넘어 아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소통과 만남을 확장하기 위함”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아주대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정책들에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코자 한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이어 “아주대학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국제화와 연구 역량 강화”임을 강조하며 “오늘 기획처장과 대외협력처장이 발표할 아주대학교의 경쟁력 증진과 포괄적 국제화 제안에 대해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민구 기획처장과 김병관 대외협력처장이 각각 ‘아주대 경쟁력 증진 방안’과 ‘아주대의 포괄적 국제화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성폭력상담센터장인 강경란 교수는 ‘아주대학교의 성폭력 관련 현황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단과대학별 분임토의에서는 교내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전날 있었던 단과대학별 토의에서 거론된 사항을 총장과 토의하는 ‘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수대학원 후기 학위 수여식
잇달아 개최



아주대학교 특수대학원들의 201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7~8월 잇달아 개최됐다. 국제대학원은 7월 4일 오전 11시 올

곡관 영상회의실에서 학위수여식을 열고 4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국제대학원은 국제개발협력학, NGO학,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정책대학원은 8월17일 오후 2시 종합관 대강당에서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과 2013학년도 후기 입학식을 함께 진행했다. 공공정책대학원은 석사 과정에서 66명, 특별 과정에서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보통신대학원 역시 8월18일 오후 2시 종합관 대강당에서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과 2013학년도 후기 입학식을 함께 열고 82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전달했다. 8월22일에는 공학대학원과 교통ITS대학원, 교육대학원이 졸업식을 진행했다. 공학대학원은 환경, 화학생명, 정보전자, 산업시스템 등의 전공에서 36명의 석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했고 최고경영자과정과 최고지식경영자과정에 서로 각각 35명, 12명의 졸업생이 나왔다. 교통ITS대학원은 1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행정, 국어교육, 상담심리 등의 전공에서 총 1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편, 경영대학원은 24일 오후 2시 종합관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교직원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열고 석사 121명, 최고경영자과정 22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다.

2013-2학기 개강 보직교수
세미나 실시

2013학년도 2학기 개강 보직교수 세미나가 8월30일 오후 2시30분 올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재환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로 임용된 교원 5명에 대한 소개와 연구우수 교수 16명과 근속교원 23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시작해 교무, 연구, 기획, 대외협력처 등 부서별 주요 현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교무처는 ‘학부생 연구(UR) 사업’의 실적과 계획 등 2013학년도 1학기 실적과 2학기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처는 올해 처음 시작한 ‘아주 우수논문상(Ajou Publication Awards)’ 등 연구지원제도 개선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며, 기획처는 중앙일보 학과평가와 대학평가 그리고 국제학사 신축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외협력처는 1학기의 교류협정 체결 성과와 함께 2학기부터 도입할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를 위한 AFP(Ajou Foundation Program)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안재환 총장은 “보직교수들이 학교의 주요정책 현황과 과제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향후 업무추진에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제대학원, 국내 첫 아르헨티나
국비유학 프로그램 시작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임재익)이 8월2일 11시 베카르(BEC, AR) 프로그램 입학식을 개최했다. 베카르는 아르헨티나 장학 프로그램의 약자로 스페인어로 ‘장학금’이란 뜻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내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국 연수생들을 위탁 교육하는 것은 아주대학교가 처음이다. 아주대학교는 교육 비용 전액을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지원받아 향후 3년간 매년 30여 명을 교육하게 된다. 이번 베카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민 중 공공기관과 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268명을 선발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그리고 한국으로 교육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 중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석사학위 과정으로, 나머지 국가는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되며 한국에 오는 29명은 모두 아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아주대학교의 베카르 프로그램은 대학원 연구과정으로 설계된 1년의 교육과정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개설과목은 총 9개 과목 27학점이며 432시간의 교육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생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적 경영과 경제관리, 산업시찰, 한국어, 그리고 각자의 전공에 따라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분야 교육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르헨티나 산업 발전을 주도할 관리자, 지도자 양성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안재환 총장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정부가 선발한 우수 인재들이만큼 무리 없이 소화해낼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아르헨티나 정부와 더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채로운 빛깔_

아주대학교 나무 이야기

가을을 맞아 교정이 단풍으로 물들었다. 노란 가을빛이 절정을 이룬 도서관 앞 은행나무길은 책 한 권을 안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사뿐거리고 싶은 풍경을 연출한다. 아주대학교의 캠퍼스는 계절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 또한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봄이면 벚꽃 구경을,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나온 인근 주민들로 인해 캠퍼스에는 한껏 달뜬 기운이 가득하다.

글 이지윤 (홍보실)

화단에서 동적인 정원으로

아주대학교에서 수십 년 간 조경을 관리해온 정홍련 선생님은 아주대학교의 조경에 대해서 “개교 초창기 원천관(당시 본관), 동관, 서관, 학생회관, 남계관 및 기숙사 식당, 정문 수위실 주위에 나무를 심어 정원을 만들고 정문 진입로로 연결했다”며 “원천관 남측 계단 좌우에는 둥근 향나무와 목백일홍, 단풍나무를 대칭 식재했고 길 건너 삼각화단에는 목향을 심어 유럽식 정원으로 꾸미고 목백일홍도 좌우대칭으로 심어 잔디정원을 조성했다”고 회상했다.

1980년도 들어 은행나무, 벚나무, 능소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삼각화단을 줄이며 도로를 현 상태로 확장했고 계속해서 명자나무, 사철나무도 식재했다. 1998년 초에는 본관이었던 원천관 건물 앞에 걸맞게 장송 43주를 심었고 그밖에도 벚나무, 명자화, 영산홍, 능소화, 목백일홍 등으로 화사하게 단장하여 아름다운 나무들이 교내 구성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단다. 정홍련 선생님은 “다만 화단 조성이 정적인 것이 아쉬웠는데, 고대하던 분수 연못이 생겨나 정적인 정원이 동적인 정원으로 완성되어 흡족했다”라고 말했다.

벚꽃의 화사한 봄, 초록의 시원한 여름



아주대학교의 나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벚나무다. 정문에서 원천관에 이르는 길과 도서관에서 율곡관까지 이어진 벚나무의 행렬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수십 년을 자란 나무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해가 갈수록 더해져 봄이면 캠퍼스 곳곳을 화사하게 밝힌다. 바람이라도 불면 꽃보라가 일어서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이에 질세라 개나리와 목련도 꽃을 피우고 영산홍도 곳곳에서 붉은 꽃더미를 만든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교정에 만발했던 봄꽃들의 화려한 자태는 수그러들지만, 이내 수목들이 푸른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린다. 원천관 앞 분수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솟아오르고 주위에 식재된 장송들도 하늘 높이 뻗어 오른다. 소나무는 아주대학교에 가장 많은 나무다. 300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원천관은 물론 율곡관 주변 정원과 정문 진입로, 체육관 인근 등 교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강렬해지는 햇빛만큼 캠퍼스의 녹음도 짙어지고, 기숙사 주변에 자라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오가는 이들에게 그늘을 선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숙사에서 신 학생회관을 거쳐 다산관, 율곡관 가는 길과 신 학생회관 동쪽에서 율곡관 북쪽 주차장까지의 중간 산책로에는 벤치도 몇 개 놓여 있다. 언제부터 이름 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운동장 옆 텔레토비 동산에도 초록물이 들어 우리를 반긴다. 동산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 더욱 아늑하게 느껴진다.

이즈음에는 과실수를 보는 즐거움도 있다. 정문에서 들어오다보면 살구가 수줍게 열린 것을 볼 수 있다. 벚꽃이 피었던 자리엔 버찌가 열리고, 율곡관과 송재관 앞 감나무에도 연두색 감이 조금씩 자라는 시기가 여름이다. 늦여름이면 산수유도 열매를 맺기 시작해 10월이 되면 본연의 색으로 붉게 물들어서 김중길 시인의 ‘성탄제’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그뿐인가. 노천극장 뒤에는 밤나무도 있다. 노천극장에 올라 캠퍼스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밤송이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명한 색의 대비 가을

순백의 눈꽃 겨울



2학기가 시작되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나무들은 잎을 하나 둘 떨구기 시작하고, 캠퍼스는 가을 옷을 입는다. 은행잎이 덮인 길 위로 차가 지날 때면 바람에 떠오른 은행잎이 파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낙엽 길을 걷는 것과는 또 다른 심상을 불러일으킨다.

울긋불긋한 가을빛을 생각하면 역시 단풍나무가 제격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학교 어딘가에서 봄부터 단풍이 들었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기후변화 때문이나 묻지만, 사실 이 나무는 홍단풍 또는 노무라단풍으로 불리는 나무다. 잎이 원래 붉은 품종이다. 도서관 앞 트랙에도 몇 그루가 있으니 근처를 지날 때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홍단풍 말고도 눈길을 끄는 나무는 신 학생회관 광장에도 있다. 이곳을 오가다 보면 신 학생회관보다도 키가 큰 메타세쿼이아 한 그루를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신 학생회관 공사 당시 자칫 명을 달리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고비를 넘기고 현재까지 살아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메타세쿼이아를 지켜낸 것이다.

겨울, 한두 개의 잎마저 떨어버린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눈이 내린다. 언제나 푸른 침엽수도 숙연한 자세로 겨울 준비에 들어간다. 캠퍼스에는 눈꽃이 만개하고 순백으로 뒤덮인 설경을 보고 있노라면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는 기분마저 든다. 특히 울곡관 남측 화단에 서 있는 소나무에 눈이 쌓이면 독야청청의 기개가 느껴질 정도다.

올 가을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그 기간이 짧고, 다가올 겨울 추위는 더욱 맹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곧 눈꽃이 필 터이고, 또 화사한 봄꽃들이 우리를 찾아 올 것을 알기에, 가을을 붙잡고 싶은 손을 이곳이 눌러 본다. 아쉬움보다는 설렘으로, 캠퍼스에 머무는 가을을 기쁨 가득 만끽하고 다시 돌아올 계절들을 기다려본다.

박테리아로 축전기를 빛다

휴대폰,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이것들 모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 바로 배터리와 축전기다. 기존 배터리나 축전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에 '박테리아'라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 공정을 대폭 간소화해낸 연구팀이 있다. 바로 아주대학교의 김동완 교수 연구팀이다. 그들의 연구 성과와 그 속에 빛나는 사제지정(師弟之情)을 들여다보자.

글 정은경 (편집실)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여름, 연일 내리는 비에 슬슬 지쳐갈 무렵인 7월31일 유명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실린 논문 한 편이 한국 과학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동완 교수팀이 발표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슈퍼 커패시터용 전극 합성 공정(Scalable One-pot Bacteria-templating Synthesis Route toward Hierarchical, Porous-Co3O4 Superstructures for Supercapacitor Electrodes)'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바로 그것. 김 교수팀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에 활용할 수 있는 나노 분말의 합성공정에 박테리아를 활용, 공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의 성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김동완 교수는 배터리와 축전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우리 연구를 이해하려면 우선 배터리와 축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것은 에너지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장 장치를 말하고, 축전기는 자동차 시동을 걸 때처럼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쓰이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장치이지요. 축전기는 순간적인 충전과 방전, 여러 번 써도 제 출력을 내줄 수 있는 변함없는 수명이 중요합니다.”

기존 장치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요즘 주목 받는 것이 바로 '슈퍼 커패시터'다. 슈퍼 커패시터란 에너지를 가볍고 안정적으로, 또 오랜 기간 공급하기 위해 용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축전기다. 김 교수는 슈퍼 커패시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 첫 시작은 5년 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였다. 당시 김 교수는 MIT에서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바이오 소재를 이용, 축전기에 쓰이는 나노 분말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에도 DNA나 단백질, 바이러스 같은 생체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나노 분말을 합성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생체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려면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하는 등 공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지요. 또 저온에서 합성해야 하고 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도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팀이 선택한 것이 박테리아였습니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 등에 비해 상온에서도 증식력이 왕성하고, 유전자 조작 역시 쉽다. 세포벽이 강력한 금속 이온 흡착력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김 교수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나노 분말 합성공정의 가장 큰 장점은 상온, 상압에서도 합성이 가능해 공정이 간단하고 수율 또한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4000번 이상의 충전과 방전 후에도 저장효율이 95% 이상을 유지하고 충·방전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나노 분말 합성공정이 적용 가능한 2차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진전되면 산업적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이미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해 놓은 김동완 교수는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2차 산출물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에 몰입했다. 화석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탄소의 과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직면한 요즘, 김동완 교수팀이 개발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는 분명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선물이 될 듯하다.

김 교수팀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함께 땀 흘리며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원생들의 공로가 컸다. 김동완 교수는 “연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속의 성질에 따라 박테리아가 부착되는 양상이 달라 그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박테리아를 금속판에 균일하게 입히는 것이 큰 과제였지요. 5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함께 연구해준 제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라며 연구 성공의 공을 제자들에게 돌렸다. 이런 스승을 향해 제자들은 “사석에서는 형이나 삼촌 같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늘 존댓말을 써주시며 자부심과 자존감을 길러준 선생님”이라고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5년간 동고동락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간 이들 사제 간의 정이 가을날 햇살처럼 빛났다.





BK21 플러스 사업에 5개 팀 최종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BK21 플러스 사업(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에 아주대학교 소속 5개 사업단(팀)이 최종 선정됐다. BK21 플러스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7년의 사업 기간 동안 매년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된다.

글 이 숲 (홍보실)

교육부는 지난 8월16일 2단계 BK21 사업의 후속인 'BK21 플러스 사업'을 위해 전국 총 64개 대학의 195개 사업단 및 280개 사업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에서는 2개의 사업단과 3개의 사업팀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단은 대학원의 학부나 학과 단위로 신청하는 형태며, 사업팀은 교수팀 단위로 신청하는 소형 규모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신청 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는지와 사업단 지원계획이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사업단으로 선정된 아주대학교의 두 팀은 ▲ 융합기반 미래형 에너지시스템사업단과 ▲ 분자과학기술사업단으로, 각각 김기홍 교수(에너지시스템학과)와 이분열 교수(분자과학기술학과)가 사업단장으로 참여했다. 두 팀 모두 과학융복합 분야다. BK21 플러스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기초과학(물리, 생물, 화학, 수학, 지구과학)과 응용과학(정보기술, 기계, 화공, 재료, 건설, 약학/수의학, 농생명, 기초 의·치·한의학) 그리고 융복합과 기타 중점 분야로 세분화된다.

김기홍 교수가 이끄는 '융합기반 미래형 에너지시스템사업단'은 미래형 에너지에 대한 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물리학, 재료공학, 화학, 에너지학, 화학공학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차세대 수송 기관용 에너지 시스템 개발 ▲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의 연구가 이 사업단의 사업 목표다.

김 교수는 "에너지시스템학과 사업단이 2단계 BK21 사업에 이어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에너지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학과 및 사업단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사업단에 참여한 연구진의 공동연구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세계 수준의 연구결과를 창출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분열 교수가 주도하는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켐바이오(Chem-Bio: 응용화학·생명공학·의치약학 융합) 분야의 기초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켐바이오 분야의 융합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수 논문 및 원천 특허를 확보,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한편 3.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사업팀 분야(소형)에서는 '이중 기기 간 스마트 협업을 위한 자율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연구팀(팀장 고영배 교수)', '혁신적 디지털 제조 시스템팀(팀장 박상철 교수)', '신뢰성 있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팀(팀장 정태선 교수)'이 최종 지원 사업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정태선 교수는 "이번 BK21 플러스 사업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아주대학교 소속 2팀이 함께 선정, 참여 교수진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됐다"며 "모바일 소프트웨어 분야를 특화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단과 3개 사업팀은 오는 2019년까지 대학원 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아주대학교 BK21 플러스 사업단(팀) 5곳에 주어지는 총 지원액은 24억690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2015년 전면적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을 탈락시키고 2016년부터 신규 사업단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3 2학기 정년퇴임 교수 및 신규 임용 교수



2013학년도 1학기를 마지막으로 4명의 교수가 정년퇴임한다. 12대 총장을 지낸 서문호 화학공학과 교수와 이상은 환경공학과 교수, 홍석교 전자공학과 교수, 김용순 간호학과 교수가 정년을 맞이했다.

서문호 교수는 1976년 임용되어 화학공학과 학과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이상은 교수는 2001년 임용되어 공학대학원장, 환경연구소장,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학부장 등을 맡아왔다. 1976년부터 37년을 재직한 홍석교 교수는 제어공학과 학과장, 공학연구소장, 공과대학 학장, 산학협력단장, 중앙도서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김용순 간호학과 교수는 1993년 부임한 뒤 간호학과 학부장, 간호대학 학장으로 일해왔다.

2학기를 맞아 아주대학교의 새 식구가 된 신입 교수진도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눴다. 신입 교수진 5명은 지난 8월30일 신입 교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안재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임용을 축하하고 또 환영한다”며 “자신의 분야에서 독립적 연구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유연성도 도모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아주대에 신규 임용된 교수는 총 5명으로 명단은 아래와 같다.

[신입교수 프로필]

- ①이정일

기계공학과 / 열유체 분야
서울대학교 박사/서울대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②신수영

약학과 / 임상약학
Purdue University 박사/OSF St. Francis Medical Center Pharmacy Resident
- ③전상민

약학과 / 예방약학
Univ. of Illinois at Chicago 박사/
Genentech Inc.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 ④김진우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울산의대 박사/아주대학교의료원 진료 조교수
- ⑤권지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피부 / 비뇨생식기 병리학
연세대학교 의대 박사 수료/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임상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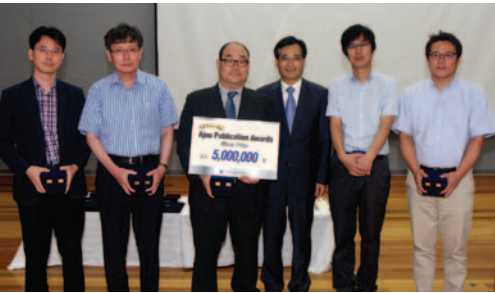
최상돈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최상돈 교수가 제58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7월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상돈 교수를 포함해 총 5명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과학 기초 부문에서 최상돈 교수와 이용일 교수(서울대)가, 자연과학 응용 부문에서 최정연 교수(서울대)와 한재용 교수(서울대)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문학 부문에서는 김종건 고려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5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9월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렸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연구 또는 저작이 우수해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연구자에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국내외 학술단체나 학술원 회원의 추천을 받은 뒤, 부문별 심사-종합심사-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은 1954년 설립된 기관으로 학술연구 지원과 국내외 학술 교류, 학술 진흥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전체 학술원 회원 수는 139명이다.

아주 우수논문상 첫 시상



‘2013 아주 우수논문상(Ajou Publication Awards)’의 수상자 16명에 대한 첫 번째 시상식이 8월30일 올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아주 우수논문상은 Silver Prize에 김문석(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등 7명, Bronze Prize에 김동권(기계공학과) 교수 등 9명이 수상했다. 특히 김문석(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와 이교범(전자공학과) 교수는 각 2편의 논문이 Silver Prize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아주대학교 교수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부문의 선진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아주 우수논문상’은 전년도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심사 대상은 아주대학교 교수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모든 논문이며, 등

재된 저널의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30% 이상이면 World-class Prize와 상금 1200만원, 인용지수가 학문 분야별 1% 이내이면 Gold Prize와 상금 800만원, 3% 이내는 Silver Prize와 상금 500만원 그리고 5% 이내이면 Bronze Prize와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동일인이라도 복수의 논문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상금을 중복 수상할 수 있다. 인용지수 기준은 학술지 평가 도구인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을 따른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 평가는 지난해 발표된 총 2205건의 실적 중 본교 교수가 발표한 1089건의 논문만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우수논문 시상을 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장-학생대표 간담회 가져



안재환 총장과 허무관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 9명이 9월4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개강을 맞아 총장과 학생들 간의 격의를 없애고, 학교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들은 각종 교내 사안들에 대해 건의 또는 질의하고, 총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총장은 “경쟁 대학들의 지표 차이가 근소해 경쟁이 치열하다. 아주대학교는 여건상 상승 동력이 연구 부문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연보 제작, 우수논문상 시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의 특성상 당장 보다는 수년 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안 총장은 온수와 장애인 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모두가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실현 중에 있다. 단, 실현의 순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자랑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총학생회 기념품 사업 협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공감대 형성 등 각종 학교 문제들에 대해 총장과 학생 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교 측에서는 총장과 학생처장, 학생지원팀장이, 학생 대표로는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학생회장이 참석했다.

유승현 교수 저작,
스프링거 선정 ‘이달의 논문’으로 뽑혀



유승현 교수(기계공학과의 저작이 세계적 학술전문 출판사인 스프링거(Springer)가 선정한 ‘이달의 논문’으로 뽑혔다. 스프링거는 지난 7월18일 유승현 교수의 “체계화된 혁신 방법론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by Systematic Innovation Tools—TRIZ, CAI, SI, and Biomimetics)”을 이달의 논문(Featured Article for this month)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TRIZ와 CAI(Computer-Aided Innovation), SI(Systematic Innovation),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 등을 소개했다. TRIZ는 러시아에서 유래된 ‘창의적 문제해결이론’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체계적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혁신적 디자인이란 우연이나 천재성 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유 교수의 저작은 지난달 출판된 《지속가능공학기술 편람(Handbook of Sustainable Engineering)》에 실렸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기술 분야의 주요 이론과 기술을 총망라한 편람 형식의 전문서적으로 환경공학과 이진모 교수가 에디터를 맡았다.

김환명 교수,
대한화학회 ‘젊은 유기화학자상’ 수상



서형탁 교수팀, 가시광 흡수율 개선한
산화물 나노튜브 개발



신소재공학과와 서형탁 교수가 한양대학교 전형탁 교수팀과 공동으로 가시광 흡수율을 기존보다 3배 이상 개선한 산화물 나노튜브를 개발했다. 서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물리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저널 오브 피지컬 케미스트리 C(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온라인 판에 실렸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서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튜브는 가시광을 수월하게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어서 태양전지나 태양광 촉매제, 광센서 등에 쓰이는 광기능성 소자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기능성 소자’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로 바꾸거나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반도체 특성이 있는 나노산화물을 광기능성 소자로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가시광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나노산화물의 가시광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열은 농도의 불순물을 주입해 전자 구조를 개선해 왔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서는 원하는 위치에 균일하게 불순물을 넣기 어려웠다.

서형탁 교수팀은 이에 착안해 짧은 시간 동안 고온 열처리하는 공정을 통해 나노튜브 바로 아래 격자에 불순물 탄소를 균일하게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가시광 흡수율을 기존 보다 약 350% 높은 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화학학과 김환명 교수가 대한화학회 유기분과회에서 수여하는 ‘제2회 젊은 유기화학자상’을 받았다. 대한화학회는 매년 열리는 유기분과회게 워크숍에서 유기화학과 관련해 탁월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에게 ‘젊은 유기화학자상’을 주고 있다. 당해 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회원만이 대상이 된다. 대한화학회는 “김환명 교수가 젊은 유기화학자로서 생체영상에 유용한 이광자 표지자 개발에 관해 독창적이며 탁월한 연구결과를 발표, 유기화학분과회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환명 교수는 지난 8월19~20일 열린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에서 ‘생체영상에 유용한 이광자 표지자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수상강연을 했다.

‘아주, 멋진 신세계’



아주대학교 2014학년도 입시광고의 주제는

‘아주, 멋진 신세계(新世界)’다.

이번 광고에는 아주대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용감하게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더불어 아주대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인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나머지는 아주대가 책임집니다’를 함께 사용,

교육에 임하는 아주대학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주대학교의 새로운 광고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7월부터 주요 신문에 게재되어 왔으며

2014학년도 정시모집까지 계속 사용될 예정이다.

이교범 — 전자공학과 교수



아주인의 저력

나는 1991년 아주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아주 캠퍼스에는 이공관(현 원천관), 동관, 서관, 본관(현 다산관), 인사관(현 성호관), 구 학생회관, 도서관 그리고 단 한 동의 기숙사만이 있었다. 정문마저 유신고등학교와 공유했던 그 시절이 벌써 22년 전, 이제에는 번듯한 정문과 인조 잔디 구장까지 갖추었으니 대우그룹의 흥망과 그에 따른 세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아주대학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아주대학교는 그야말로 ‘아주공대’였다. 입학 초기에는 ‘공대생이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을 웃도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아주공대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실험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 철저한 학사 관

리, 열의를 다하는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교육 등이 어우러져 4학년이 되니 이미 우리 제어계측공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공학 소양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있었다. 훌륭한 교육 환경에 학생들의 열의까지 더해져 우리 학생들은 취업해서도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재라는 평을 들었고, 성실한 인재라는 호평도 받았다. 수업에 대한 열의도 대단해 전공수업 때마다 책걸상을 들고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다 사소한 말싸움이 나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나는 2007년도에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설레는 가슴으로 3학년 학생들의 자동제어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

1991년 아주대학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아주대학교는 그야말로 ‘아주공대’였다. 입학 초기에는 ‘공대생이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을 웃도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아주공대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실험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 철저한 학사 관리, 열의를 다하는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교육 등이 어우러져 4학년이 되니 이미 우리 제어계측공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공학 소양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있었다. 훌륭한 교육 환경에 학생들의 열의까지 더해져 우리 학생들은 취업해서도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재라는 평을 들었고, 성실한 인재라는 호평도 받았다. 수업에 대한 열의도 대단해 전공수업 때마다 책걸상을 들고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다 사소한 말싸움이 나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도 너무 선명하다. 부푼 가슴이 곧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앞자리는 엎드려 단잠을 자는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주대학교에 가면 공부하고 싶어 환장한 모교 후배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그간의 꿈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대놓고 지는 학생에게 나가라고 호통도 쳐보고, 분필을 던져 깨워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강의평가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강격책이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 하나 필자를 놀라게 한 것은, 학생들이 4학년 전공 관련 응용 및 심화수업에 10~20명 정도밖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주대학교의 명성은 실험 실습 위주의 전공 관련 응용 및 심화수업에서 시작되었다. 심화 수업을 기피하는 학생들을 보며 아주대학교의 명성이 점차 퇴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피할 수 없었다. 아주대학교는 ‘입학 때보다 졸업 때 훌륭한 학생을 키운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우’라는 기업과 아주대학교의 흥망을 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아주대학교의 저력은 우수한 커리큘럼과 철저한 학사 관리, 교수들의 헌신, 학생들의 열의가 가장 큰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다.

나는 전자공학과에서 주로 4학년 수업을 맡고 있다. 첫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이 있으면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동영상 틀거나, 썰렁한 농담으로 소름을 끼치게 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곤 한다. 또한 전공 응용 및 심화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알리고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수업을 위해 교재를 저술하기도 하고, 좋은 외국어 전공서적을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졸업생들이 찾아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가르쳐주신 부분과 거의 같은 일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교육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에 만족을 느끼곤 한다.

나는 대학원 교육이야말로 아주대학교의 저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대학원생은 실험 실습에서 조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요 기초 과목에서는 튜터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교수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업체와의 연구과제 등의 활발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인데 대학원생 연구원들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나는 전자공학과에서 전력전자연구실 지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연구실 대학원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학문에 대한 열의다. 그래서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학점이 다소 낮더라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를 높게 평가해 선발하고,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거치면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전력전자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올해부터 본인들이 연구과제를 통해 받은 연구장학금 일부를 전자공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도교수도 그 장학금에 일부 기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심사도 장학금을 기부한 학생들과 지도교수인 내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아주인 특유의 저력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전력전자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어떻게 성공할지, 그 성공을 후배들과 어떻게 나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전력전자연구실 대학원생, 전자공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이 아주대학교의 저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아주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Ajou univ. news_ Award & Selection

전국 1~2학년 대학축구 3연패



아주대학교 축구부가 제9회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정상에 올라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축구부는 지난 7월8일 전남 영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전주대를 4대0으로 물리쳤다. 또한 아주대학교 축구팀 주장인 안세현이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조주영은 대회 5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이정효 축구부 감독은 “2년 동안 정상에 올랐던 대회라 부담이 컸다. 골키퍼가 한 명만 참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이 하나가 되어 푼푼 뚫고 묵묵히 열심히 땀 선수들이 있어 우승할 수 있었다”며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등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7월22일부터 보름간 열린 제44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아주대학교 축구부는 4강에 올랐다. 이 대회에는 전국 63개 대학에서 2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축구부는 32강전에서 동국대를, 16강전에서 조선대를 꺾었고 8강전에서는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던 강호 연세대를 1대0으로 눌렀다. 아주대학교 권수현이 우수선수상을, 4골을 넣은 조주영이 득점상을 받았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김혜선)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7월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한 일선 현장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매년 여성주년을 기념하여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아주대학교를 포함한 5개 단체와 49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대해 “전국 여



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전문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취업 사업과 여성 지도자 대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2003년 5월에 설립되어 지난 10년간 양성평등과 젠더의식 강화 및 여대생의 커리어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국제학회지 부편집장으로 선임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고정환 교수가 생산공학회(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 이하 SME)의 대표 학술지 중 하나인 《생산시스템학술지(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s)》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으로 선임됐다. SME는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생산공학 분야의 최대 비영리 전문가 단체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2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SME에서 발행하는 《생산시스템학술지》는 생산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저명 국제학술지다. 고정환 교수는 부편집장으로서 투고된 논문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작업뿐 아니라 최종 기고 승인 등 학술지 발간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한편, 고정환 교수는 2007년부터 SME 수석회원(senior member)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생산공학 부문(Manufacturing Engineering Division)의 생산시스템 기술위원회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다행 학생, 국민연금 대학생 광고공모전 최우수상



이다행(문화콘텐츠학과 05) 학생이 <제8회 국민연금 대학생 광고 공모전>의 영상광고 스토리보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수상작은 ‘신입사원 연희가 미래의 연희에게 보내는 영상 스토리와 ‘미래에게 쓴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보이는 내용이다. 핵심 메시지인 ‘미래에게 쓴다’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게 쓰는 돈이라는 뜻과 동시에 편지를 쓴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다행 학생은 “문화콘텐츠학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전에 활용해보고 싶어 도전하게 됐다”며 “수업을 통해 배운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게 쓴다’라는 메시지를 완성해 스토리라인과 카피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스토리보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해 너무 기뻐 수상공고를 하루 종일 확인했다.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학과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공모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우수성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영상광고 스토리보드, 인쇄광고 및 캘리그래피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부문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그리고 장려상 5명을 선발했다. 5월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모작을 접수받았으며, 지난 8월23일 최종 수상작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장기근속 교직원 41명 포상



아주대학교는 2013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교직원 장기근속자에 대해 포상했다. 8월29일 오전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3 직원 장기근속자 포상식에서는 총 18명의 직원이 상을 받았다.

포상 대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30년 근속__길애숙, 김근태, 유시대, 이병근, 임승오, 장세덕, 최재환

20년 근속__고병수, 김수영, 김영기, 김종현, 이선형, 임군진

10년 근속__김중화, 윤정용, 이석원, 이은경, 최창기

한편, 30일 오후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2학기 개강보직교수 세미나'에서는 장기근속 교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안재환 총장이 30년 근속한 최태영(전자), 김광윤(경영) 교수 등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장기근속 교원 포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30년 근속__최태영(전자), 김광윤(경영)

20년 근속__최윤호(기계), 오영태(교통), 선우명훈(전자), 이중섭(수학), 이천우(화학), 임재익(e-비즈), 조성율(사학), 김영진(심리), 진미경(정외), 김형택(에너지)

10년 근속__김현정(기계), 김경래(건축), 김재현(전자), 김상인(전자), 고영배(소프트), 이경원(미디어), 경민호(미디어), 정경훈(영문), 김용진(경제), 김동근(경제), 윤현철(응용)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아주대학교 학부생 3팀이 올 여름방학 기간 중 해외 학회에 참가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학생들은 아주대학교가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해 온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URP)' 참여자들로 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펙 위주의 수동적 공부 풍토를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글 이 슴 (홍보실)



김동진 (미디어학과 4학년)



박재준 (미디어학과 4학년)



이재호 (미디어학과 4학년)



하지수 (정보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정렬 (경영학과 4학년)

올 7~8월 해외학회에 참가했던 아주대학교 학생은 하지수(정보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정렬(경영학과 4학년), 이재호·김동진·박재준(미디어학과 4학년) 팀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수 학생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2013 유비쿼터스와 미래 네트워크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and Future Networks, ICUFN)'에 참가해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영학과 김정렬 학생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심리학회(APA) 학술대회에 참가해 '예비 금융인의 투자 활동 참여 시 심리적 특성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디어학과 4학년 이재호·김동진·박재준 학생 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CG업계 박람회인 미국컴퓨터학회(ACM) 산하 'SIGGRAPH 2013'에서 '위키피디아 리비전 히스토리의 새로운 시각화 방법'이라는 연구주제에 대해 포스터 부문 발표 기회를 얻었다.

세 팀은 아주대학교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다.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은 아주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ACE)'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수동적 공부 방법을 바꾸기 위해 기획한 전교적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개인 혹은 팀이 관심 있는 연구주제를 잡고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 연구를 진행한다. 주제 선정부터 데이터 분석과 해석, 그리고 논문 작성에 있어 모두 학생 본인이 주도해나간다. 논문을 완성한 학생들은 계속 내용을 보완해나가면서 유명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해외 학회에 참가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UR 프로그램은 2011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 UR 프로그램에는 총 187개 팀, 46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이 3~4학년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대 3~4학년의 15% 가까이가 참여한 셈이다. 올해 1학기에도 약 440여 명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학기 신규 참여자까지 고려하면 올해 참가자 수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UR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부생으로서는 드물게 해외 학회 참가의 기회를 얻은 학생들은 세계 곳곳에서 온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최신 동향을 접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수(정보컴퓨터공학과 4학년) 학생은 "학회 참가를 통해 네트워크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레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CG업계 박람회인 'SIGGRAPH 2013'에 다녀온 이재호 학생(미디어 4학년)은 "세계적인 학회에 참가해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고 느끼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내가 연구해온 '정보 시각화' 분야가 그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김정렬 학생(경영 4학년) 역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연구 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2013 아주 국제여름학교

Ajou International Summer School

무더위 가실 날 없던 지난 여름, 아주대학교 국제협력팀이 주최한 국제여름학교가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71명의 외국인 학생과 12명의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한 국제여름학교는 7월2일부터 8월6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계속됐다. 수업은 주 4일로 진행됐고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 문화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용인민속촌, 현대자동차, 수원 화성, 보령 머드축제, 남산 한옥마을 등을 방문했다. 83명 참가자들의 뜨거운 여름을 만나보자.



01



02



03



04



05



06



10



07



08



09



11

01 "신랑 신부 맞절~" 민속촌에서 한국 문화 체험 02 03 05 "모두 다 함께 차~즈 다시 다시 감~채!" 제주도 여행 04 "우리는 머드 미인. 머드 축제에 와서 예뻐졌어요" 보령 머드축제 06 "여러분 모두 행복 하세요~" 남산 한옥마을 서예 체험 07 08 09 "이얍! 태권! 제 발차기 매섭지요?" 태권도 체험 10 "우리 한복 입은 모습 어때요?" 남산 한옥마을 한복 체험 11 현대자동차 기업탐방

《2012 아주대학교 연구연보》출간

《2012 아주대학교 연구연보》가 출간됐다. 총 380여 쪽의 2012학년도 연구연보는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특허, 기술이전 실적 등을 수록했다. 연구연보는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분석하고, 교수별 집중 연구분야를 파악하는 정책자료집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안재환 총장은 발행사를 통해 “본 연보가 단순한 통계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협력연구 계획과 연구진흥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중한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13 생명사랑대상 수상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중한 전임 연구원이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하는 ‘2013 생명사랑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지난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서중한 연구원을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사이코패스, 자살 사망자에 대한 언어 분석 등 법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 ‘한국 자살자 사망자들의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연구원과 김경일 교수는 수년간 자살 사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 교수팀은 자살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자 유가족과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 등에 성과를 내 왔다.

심리적 부검이란 특징인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물리적 사인이 아닌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관이 자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고인의 일기와 같은 개인적 기록과 병원 의무기록, 검사관 진술 등을 수집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혀낸다. 조사항목에는 질병과 가족관계, 학력, 소득 등 자살사망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심리적 부검에 대한 자료가 쌓이면 어떤 계층이, 어떤 심리적 특성에 처한 사람이 자살위험이 높은지를 파악

할 수 있다. 또 어떤 시점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지도 예상할 수 있어 자살 예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2013년 생명사랑대상은 서 연구원이 수상한 학술부문상 이외에도 봉사, 보도, 문화, 네트워크 부문에서 수상자를 냈다. 부문별 수상자는 ▲봉사부분 ‘생명의 전화’ 나선영 국장 ▲보도분야 ‘EBS 제작팀’ 한경수 PD ▲문화부분 극단 ‘느낌’ 김종성 대표 ▲네트워크부분 ‘울산시의회’ 류경민 의원이다.

한편 정부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올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했다.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中 교사 초청 전문교육 진행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가 지난 8월16일 ‘중국 하남성 고등 전문 교사 해외 교육’을 진행했다. 고등기술연구원과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가 후원하고 중국 하남성 교육청과 하남성 과학기술대학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하남성 고등교사(전문대학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에는 김형택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센터장과 김주민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한국의 화학공학 교육과정 개발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의 화학공학 교육관리방식 및 학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중국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 중국 고등 전문 교사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중국 교사진은 아주대뿐 아니라 경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한국스페셜올림픽 조직위와 업무협약 체결



아주대학교와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17일 을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아주대학교 측에서 안재환 총장과 김민구 기획처장,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장 등이,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석호현 조직위원장과 이내웅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한편,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대제전인 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는 지난 8월21일부터 사흘간 수원에서 육상, 탁구, 축구 등 10개 종목에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치러졌다.

고교생 모의재판대회 경기·인천 지역 예선 개최



지난 8월27일 종합관에서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경기·인천 지역 예선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인천 지역 고교생 6팀이 참가해 민·형사 부문 모의재판 경연을 벌였다. 이날 대회는 법무부가 주최하고 경기 지역 유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수원지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이 후원했다.

올해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지역 예선에는 서울·강원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제주권, 부산·경남·울산권, 경기·인천권으로 나눠 총 36개 팀이 참가했으며, 8~14명이 한 팀을 이뤘다. 본선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병원, 2013년 권역외상센터 지정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던가? 아주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2013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환자에게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외상전용 치료기관을 말한다. 권역외상센터 설립 논의의 시작이 아주대학교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해 아주대가 지정받지 못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잡음 끝의 성과다.

글 정우준 (홍보실)

2013 권역외상센터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자본금 80억원과 인력 확보, 이송체계 구축 등을 위한 운영비 7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남부지역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관리하는 임무도 함께 맡았다. 또, 권역외상센터 지정 시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했던 건축비 200억원도 함께 확보하게 됐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5년 하반기까지 지금의 장례식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외상센터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완공될 외상센터에는 중환자 전용 50병상, 일반병실 70병상 등 총 120병상이 들어서며 34개의 수술실, 영상장비실, 진료실, 외상소생실, 외상환자 진료구역 등이 마련된다. 또한 당장 올해 11월부터 20병상의 중증외상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외상센터를 오픈,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은 센터가 들어서면 한 해 1000명 정도의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희석 병원장은 이번 선정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원들의 200억원 지원계획 등 물심양면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경기도는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률,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전국 1위이고 중증외상환자 발생비율도 전국 2위이다.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정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사실 응급실에만 익숙한 한국 사람에게 권역외상센터는 꽤 낯선 용어다. 적어도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우리 해군이 구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모든 이야기는 석해군 선장의 총상 치료 병원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지정되고,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성공적으로 석 선장을 치료하면서 시작됐다. ‘왜 아주대학교인가?’, ‘이국종 교수는 왜 총상 전문가?’란 의문으로 시작된 논의는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스템의 후진성에 대한 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 후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립이 해결책으로서 제시됐다. 2012년 5월 지역별 권역외상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이국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2년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현재 35% 수준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아주대학교병원이 사업 선정에 실패하면서 ‘이국종법에 이국종이 없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올해 사업 선정에 성공하면서 이국종 교수는 다시 한 번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우리 병원이 중증외상특성화센터를 운영하며 전담의료



진을 양성하는 한편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계기로 경기 남부 지역의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10%대로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치료 수준은 석 선장의 총상을 치료한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미 2002년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었고, 이국종 교수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 또 2010년에는 중증외상특성화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의사 5명과 간호사 10명, 응급구조사 3명 그리고 사무원 1명 등 전담의료진 18명이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중증외상환자 2415명을 치료했고, 2012년 한 해에만 중증외상환자 73명을 의료진이 직접 헬기에 탑승하여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경기 남부권의 권역외상센터로서 아주대학교병원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할 의료서비스 환경변화에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으로 2회 연속 인정받아



아주대학교병원이 최근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법 중 하나인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으며 ‘심장 수술 잘하는 병원(관상동맥우회술)’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아주대학교병원은 평균 종합점수 86.2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95.7점을 받으며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1등급 평가는 지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이 허혈성 심질환 최후의 치료법인 관상동맥우회술까지 완벽히 치료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평가 기간 동안 평균 76건을 상회하는 132건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은 치료 수준을 보였다. 또한 수술 후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생존지수가 101.4%에 달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예측한 생존률보다 높은 생존률을 나타내며 치료 성공률에서도 그 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서울의 17개 상급 종합병원 중 8곳만이, 경기지역에서는 5개 상급 종합병원 중 단 2곳만이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생존지수에서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전국 성적인 국내 5위의 성적을 기록해 경기지역은 물론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치료 실력을 가졌음을 증명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유수 제약회사와
잇달아 MOU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유수 제약회사 9곳과 잇달아 인적·물적·학술적 교류 및 산학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기도 상급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6월3일 (주)테라젠이텍스를 시작으로 11일에 한미약품, 13일에 안국약품과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로써 4월부터 진행한 유한양행, (주)셉트론, 휘트다라이프, (주)대명사이언스, 프로테옴텍, 신일제약까지 포함하여 총 9곳의 제약회사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

소의영 의료원장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국내 유수 제약회사들과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와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4대 만성질환인 골관절염, 난청, 알러지천식, 뇌혈관질환에 대한 실용화·산업화 과정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소아성장질환 치료 위한
‘성장비만센터’ 문 열어

아주대학교병원이 ‘성장비만센터’를 개소했다. 성장비만센터(센터장 황진순 교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성장질환을 좀더 전문화해 진료할 수 있는 전용 공간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009년 성장클리닉 개설 이후 연간 3만



위치해 있고 전용 면적 106㎡를 사용한다. 소아청소년과 황진순, 이혜상, 심영석, 정활림 교수가 주로 성장과 비만을,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가 소아정형외과 질환을,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가 불임을 진료하고, 영상의학과 이은주 교수가 협진한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성장 발달, 유전, 대사질환, 비만, 척추측만증, 비만, 불임 등에 대한 문제는 이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급성중독 환자 위한
‘급성중독 치료센터’ 개설



터로 실려오는 즉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중독학을 전공한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체외로 중독물질

8000여 명에 이르는 성장관련 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성장관련 질환에서 기존의 소아내분비 영역뿐 아니라 척추측만증, 평발과 같은 소아 정형외과 영역이나 터너 증후군의 난소기능장애와 같은 산부인과 영역에 대한 진료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성장비만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성장비만센터는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 3층에

을 제거해야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응급실에서 바로 24시간 혈액투석이 가능하고, 중독환자를 위한 전용 집중치료실과 입원실도 갖췄으며,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해 중독환자의 전화 문의나 치료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급성중독 치료센터의 진료는 응급의학과 민영기, 최상천, 이지숙 교수와 신장내과 박인휘 교수가 맡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진료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고, 중독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가 의료진으로 참여한다.

한상욱 교수팀,
2013년 암정복 사업 신규과제 선정



개 대학병원 협동연구팀이 진행하는 다기관 암 임상연구다.

이 연구팀은 향후 5년간 매년 2억원씩 최대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형 위암환자에서 복강경 및 개복 수술에 관한 다기관 무작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2013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는 총 16개 과제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평가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암정복추진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한상욱 교수의 연구과제를 비롯한 총 3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외과 한상욱 교수팀의 연구과제가 최근 보건복지부 2013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명은 ‘진행형 위암환자에서 복강경 위절제술 및 확대림프절 절제술의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일명 KCLASS02)’다. 한상욱 교수가 주관연구책임자이고 외과 조용관, 허훈, 변철수 교수를 비롯하여 아주대학교와 10



후배들이여, 꿈을 찾아라!

지난 9월24일 SBS TV의 예능 프로그램 <화신>에 출연한 배우 김지훈(32)은 멋진 외모 보다 더 빼어난 말솜씨로 눈길을 모았다. 2년의 군 생활 후 올 초 <이웃집 꽃미남> (TVn)으로 활동을 재개한 김지훈은 최근 SBS의 주말드라마 <결혼의 여신>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출신 검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바쁜 와중에도 ‘아주대학교 사람들’을 위해 선뜻 시간을 내준 김지훈 동문을 만난 곳은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카페. 드라마 속 반듯한 검사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그는 “제가 먼저 모교를 찾아 은사님들과 후배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주대학교에서 저를 먼저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네요”라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글 정은경 (편집실)

아주대학교 동문이란 뽕뽕한 자부심

“제가 연예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출신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지난번 어떤 잡지 인터뷰 때는 제가 아주대학교 출신이라니까 기자가 단번에 ‘공부 잘 했나보네요’ 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대학교 동문들이 수재라는 사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웃음).”

은근슬쩍 자신이 공부 ‘폐나’ 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그는 “그때 우리 학번 친구들은 전국의 대표선수들이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던 지방 수재들이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맘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아주대학교 였거든요”라며 이번엔 친구와 학교 자랑까지 더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김지훈 동문이 입학하던 당시, 아주대학교의 장학제도는 그야말로 ‘뽕뽕’했다. 덕분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들었고 전국의 ‘공부 대표선수’들과 보낸 신입생 시절 1년은 배우 김지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제가 온전하게 대학생으로서의 시간을 보낸 것은 1학년 때뿐이었지요. 그때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수재들이지만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는 샌님들은 아니었어요. 인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술잔을 기울일 줄도 알고,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이야기와 술에 취해 친구의 좁디좁은 자취방에 대여섯 명이 몰려가 밤을 새우기도 했지요. 인간과 인간이 부대끼며 만들어내는 정, 의리, 이런 것들을 그때 배웠어요.”

당시 친구들과의 만남과 부대끼는 지금 그의 연기에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는 지금도 그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에서의 첫 1년이 저물어 갈 무렵, 그는 잊었던 꿈을 좇아 새 날개를 폈다. 잠시 접어두었던 ‘연예인’으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명 기획사의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던 것. 처음에는 가수 지망생이었다. 그러나 연습생으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길은 ‘노래’가 아닌 ‘연기’임을 깨달았다. 마침 소속 기획사에서조차 연기 매니지먼트를 시작했고, 덕분에 그는 ‘배우’로 첫 발걸음을 뒀다. 2002년 드라마 <러빙유> (KBS2)를 통해서다.

“가수 연습생이었으니 연기는 낯설 수밖에 없었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심리학 공부가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심리학이 사람의 내면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배역을 분석하고 미묘한 심리를 표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와 연기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촬영 스케줄에 밀려 수업에 못 들어가면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통사정했다. 그리고 수업에 못 나가는 대신 리포트를 썼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런 그를 학교 교수님들은 지지하고 응원해주었다. 덕분에 그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공부가 배우로 성장하는데 다양분이 되어 줬다.

“아주대학교는 제 꿈을 이루게 해준 토대인 거죠.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제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시지 않았다면 공부든 연기든 둘 중 하나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제가 아주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꿈을 찾을 수 있는 토양을 마



련해주고, 그 꿈을 응원해주는 학풍이야말로 큰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자신의 꿈과 모교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지훈 동문은 자신을 ‘행운아’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는 후배들에게도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당부한다.

“20대 초반에 ‘연기자’라는 꿈을 찾았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저는 참 운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대학에서의 시간들을 꿈을 찾기 위해 쓰라고.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경쟁에 내몰려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펙 쌓기에 쫓기다 막상 졸업하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면 대학 졸업 후에 고시원이나 도서관에서 다시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대학 때 공부 안한 사람 아니거든요? 문제는 뚜렷한 목적의식, 즉 꿈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대학생활을 투자했으면 합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한 시간여의 인터뷰 동안 ‘꿈’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김지훈 동문, 그가 후배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거리는 아주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한 특별한 인연

죽음 앞에서 다시 찾은 생명이었다. 11년 전 풍전등화 같던 그의 목숨을 아주대학교병원 의료팀이 살려주었다. 다시 찾은 생명 앞에서 강래성 회장은 '보은'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는 지난 11년 동안 크고 작은 나눔을 실천했고, 마침내 지난 9월12일 아주대학교에 대학발전 기금 1억원과 매년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수들을 위한 연구장려금 500만원을 기탁함으로써 큰 뜻을 이뤘다. 열심히 사는 것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정은경 (편집실)

2013년 9월27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로 강래성 세원 EPC 회장을 찾아갔을 때, 그의 사무실에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찾아와 있었다. 중간에 끼어든 꼴이 된 취재팀이 자리에 앉자마자 들은 첫 마디는 '돈이 있다고 다 기부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그는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일까?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실, 내가 그리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죠. 회사 차린 지 15년 만에 EP업계에서는 내로라 할 정도로 기업을 키워냈으니 나름 성공도 했어요. 하지만 기부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일입니다. 아마 나도 11년 전 그 일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기부나 봉사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다짐한 나눔을 실천하다

그가 이야기하는 '11년 전 그 일'이란 '죽음과 맞섰던' 교통사고와 적극적인 치료를 말한다. 2002년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옮겨진 병원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며 큰 병원으로 이송하길 권했다. 결국 그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실려 왔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났다. 아주대학교병원 김옥환 교수는 앰블런스에 실려 온 그를 보자마자 바로 수술대에 올렸다.

“아마 그때 검사한다고 조금이라도 지체했으면 나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김 교수가 보자마자 바로 수술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거지요.”

강래성__ 세원EPC 회장



죽음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강래성 회장은 '보은(報恩)'이란 말을 떠올렸단다.

“보은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생각한 보은은 나눔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 후배들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내가 다시 사는 의미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 후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사업의 터전이기도 한 화성시 정남면의 장학회 활동은 물론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도관광 등 크고 작은 나눔을 펼쳐왔다. 그리고 지난 9월12일에는 아주대학교에 대학발전 전기금 1억원과 교수 연구장려금 500만원(매년 기부 예정)을 기탁한 것이다.

“11년 전 퇴원을 하면서 내 생명의 끈을 다시 잇게 해준 아주대학교 병원에 꼭 보은하리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끈을 잇기 위해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지요. 올 8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과 배움을 함께 준 아주대학교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발전기금과 연구장려금을 내자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들었다. 왜 하필 연구장려금일까?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그것도 일종의 장학금이예요. 나는 내가 기탁하는 연구장려금이 중견 교수들이 아닌 이제 막 임용된 신입 교수, 젊은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쓰였으면 하거든요. 사실 젊은 교수들에게는 연구 지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연구장려금을 드림으로써 더 뛰어난 연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생색은 덜 나도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 의지를 북돋겠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말을 잇던 강래성 회장은 다소 속스럽다는 듯이 이제 기부 얘기는 그만하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신의 회사를 둘러보자는 것. 그의 회사명은 세원 EPC다.

“뭘 만드는지 잘 모르겠죠? 속칭 '엠뿌라'라는 게 우리 회사 제품이예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이 정식 명칭인데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자동차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소재지요. 아마 이 분야에서는 우리 회사가 최고일 걸요.”

회사 이야기를 하는 강 회장의 얼굴엔 자부심이 묻어났다. 대학에서 식품 관련 전공을 한 그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곳은 선경인더스트리의 연구소.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 고졸 학력을 인정받고 취업을 했다. 그리고 그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다. 일본 연수를 가기 위해 3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을 따냈고, 그 결과 겨우 일본 연수를 갈 수 있었던 일, 일본의 연수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는 수강이 허가되지 않는 내국인 전용 과정에 들어간 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강 회장의 지난날은 오로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 회장은 입사 20년 만에 EP 분야에서만 10개 이상의 특허출원을 해낸 EP 분야의 전설적인 전문가가 되었다. 1999년 창립한 그의 회사는 대기업들에서도 기술 연수를 받으러 올 정도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한다.

회사를 둘러보며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던 강래성 회장, 같이 자리한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문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대충 살았다면 아직도 나는 그저 큰 기계의 부속 같은 샐러리맨이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피하면 안돼요. 부딪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삶의 지침 '열심히 살자'. 그의 소박한 웃음에는 열심히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지가 배어 있었다.

1억 기부 강래성 회장에 감사패 전달



안재환 총장이 지난 9월12일 1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강래성 세원EPC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래성 회장은 올 8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학교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더불어 매년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수에게 500만원씩의 상금도 지원키로 했다.

안 총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기부자의 뜻을 살려 발전기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래성 회장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귀래리에 위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제조업체인 세원EPC의 회장으로,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아주대학교 병원 김옥환 교수팀의 치료로 다시 생명을 건진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해심 교수 ‘연구중심병원’ 위해 5000만원 쾌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해심 교수(알레르기내과)가 최근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의 연구발전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 박 교수는 지난 1월 알레르기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해 20여 년간 임상연구와 중개연구를 주도한 공로로 (주)유한양행이 수여하는 유일한상을 수상했고 이때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학교를 위해 기부했다.

박해심 교수는 “이번 기부금이 향후 아주대학교병원의 미래 목표인 연구중심병원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의 발전에 교직원과 동문 그리고 환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해심 교수는 198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사우스 헨튼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주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지원실장과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임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박해심 교수는 국내 알레르기 분야 학자 중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교수다. 미국 영국 및 유럽에서 발간하는 국제 알레르기 학술잡지에 현재까지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 알레르기 분야에서 최다 연구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연구자상, 아시아 21세기 200인 지도자, 동아일보에서 평가한 베스트 닥터 시리즈 중 알레르기 분야 2위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세계알레르기학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주대생 후원의 집’ 현판 전달식

아주대학교 앞에 위치한 음식점 Mr.Chef가 8월부터 아주대 후원의 집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약정했다. 이를 기념해 대학발전본부는 지난 9월6일 후원의 집 “아주랑”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주대생 후원의 집 캠페인은 아주대학교 주변의 모든 상가와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장학금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



약대 발전기금 · 소비조합 장학금 전달식 열려



8월6일 오후 아주대학교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약학대학 발전기금 약정식이 열렸다. 이범진 학장과 정이숙 학과장을 비롯한 약학대학 교수진은 총 4100만원의 약학대학 발전기금 기부를 약정했다. 서원희 연구소장, 이숙향 교수, 김소희 교수, 김홍표 교수, 김현아 교수, 김형수 교수, 장선영 교수, 백승훈 교수, 서민덕 교수, 이동주 교수, 노민수 교수가 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안재환 총장과 김민구 기획처장, 이준섭 총무처장, 김윤기 대학발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약학대학 발전기금 약정식에 이어 소비조합 장학금 기탁식도 같은 날 오후 진행됐다. 이준섭 소비조합이사장(총무처장)은 총 71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학교에 기탁했다.

Donation List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 (2013.7 ~ 2013.9)

김동길 / 강기룡 / 강도환 / 강미애 / 강병혁 / 강승현 / 강태규 / 강태현 / 강현우 / 김경준 / 고기황 / 고민수 / 고민진 / 공만식 / 광기호 / 구준모 / 권기쁨 / 권오희 권용일 / 권종희 / 권진상 / 강홍민 / 권준련 / 김경희 / 김관균 / 김광윤 / 김국희 / 김동문 / 김규남 / 김기석 / 김기현 / 김기현 / 김동엽 / 김동일 / 김동현 / 김두화 김명덕 / 김명범 / 김무림 / 김미숙 / 김민구 / 김민수 / 김민우 / 김병관 / 김보경 / 김봉식 / 김상대 / 김상룡 / 김상준 / 김상태 / 김서용 / 김성조 / 김소희 / 김숙영 김술찬 / 김승범 / 김승주 / 김시환 / 김아름 / 김연주 / 김영래 / 김영숙 / 김영아 / 김영제 / 김용덕 / 김용성 / 김용태 / 김운천 / 김원상 / 김윤기 / 김은규 / 김인규 김정두 / 김지희 / 김진옥 / 김창길 / 김천훈 / 김태환 / 김한옥 / 김현성 / 김현아 / 김형택 / 김형호 / 김혜영 / 김혜진 / 나창용 / 나충주 / 남궁윤 / 남석현 / 노민수 도미진 / 류승우 / 문도준 / 문병철 / 문승경 / 문은표 / 민경호 / 박대현 / 박만규 / 박봉기 / 박상용 / 박상옥 / 박상희 / 박성우 / 박성진 / 박순호 / 박승진 / 박영동 박인자 / 박일분 / 박재영 / 박지용 / 박춘자 / 박하나 / 박혜준 / 백두산 / 백승흠 / 서민덕 / 서원희 / 서한진 / 석용수 / 선준규 / 성재영 / 성지선 / 손영복 / 송용호 송현호 / 신동혁 / 신승수 / 신영관 / 신윤철 / 신형섭 / 심현민 안대경 / 안대근 / 안영찬 / 안영환 / 염동일 / 오말지 / 오승수 / 오신규 / 오은애 / 왕재선 / 위영철 유동호 / 유재국 / 유재석 / 육진술 / 윤정훈 / 윤진수 / 윤현우 / 유형진 이가희 / 이강구 / 이광필 / 이교범 / 이군상 / 이동주 / 이동현 / 이문구 / 이문환 / 이민상 이범진 / 이상민 / 이상열 / 이상엽 / 이상준 / 이상현 / 이성진 / 이숙향 / 이승용 / 이승희 / 이영민 / 이영준 / 이영철 / 이영화 / 이정준 / 이종연 / 이지현 / 이진식 이창준 / 이혁재 / 이혁준 / 이효걸 / 인정숙 / 임동하 / 임용백 / 장삼진 / 장선영 / 장은혜 / 전도만 / 전상천 / 전세훈 / 전용준 / 전철구 / 정말희 / 정명숙 / 정병하 정상호 / 정서진 / 정선희 / 정성운 / 정세훈 / 정수용 / 정영근 / 정영호 / 정옥균 / 정우준 / 정인권 / 정해근 / 정현우 / 정형식 / 정홍락 / 제갈훈 / 조은진 / 조재현 주기영 / 진성호 / 최경덕 / 최근경 / 최병철 / 최상일 / 최선정 / 최영우 / 최영찬 / 최원 / 최진영 / 최희자 / 하나영 / 하중수 / 하혜영 / 한영희 / 한정희 / 허영관 홍성길 / 홍재광 / 홍정석 / 홍형숙 / 황규서 / 황원선
(사)아주대학교 동문장학회 / (재)경동장학재단 / (재)구원장학재단 / (재)아경장학재단 / (주)벤티코리아 / (주)삼광캠 / (주)우주일렉트로닉스 / 가치있는밥상 / 건축학 과 학생일동 / 계몽춘천닭갈비 / 둔황갈비 / 마포소문난죽발순대국 / 명동갈국수 사브사브 / 무교동일품낙지 / 미라클전자 / 미스터셰프 / 비티에스테크놀로지스(주) 사회복지법인 건아재단 / 세원EPC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아주대학교 소비조합 / 아주스크린 / 유니온플라워 / 제이디플러스(주) / 제일찌개백반 / 주식회사 오케이 컨설턴트 / 카트라인 아시아 서울(주) / 태화장 / 한우람 명품관(주) / 해성엔지니어링(주) / 허수아비 / 현경

1-1-1 캠페인 기부자 (2013.7 ~ 2013.9)

갈원모 / 감동근 / 감정규 / 강경원 / 강경택 / 강경호 / 강기현 / 강기훈 / 강두경 / 강송규 / 강명구 / 강명덕 / 강명희 / 강민구 / 강신구 / 강병돈 / 강병욱 / 강복선 강복순 / 강석배 / 강석환 / 강성식 / 강성윤 / 강신호 / 강신희 / 강연희 / 강영모 / 강영화 / 강원구 / 강윤희 / 강은철 / 강이석 / 강인희 / 강종성 / 강종우 / 강준성 강중수 / 강진모 / 강창진 / 강충권 / 강태현 / 강하중 / 강한현 / 강현주 / 강형호 / 강호식 / 강호출 / 강환규 / 강훈 / 강희석 / 강희진 / 경정현 / 경태영 / 경평원 고강현 / 고건웅 / 고광희 / 고대권 / 고동식 / 고동현 / 고명식 / 고병각 / 고병수 / 고상현 / 고성민 / 고숙영 / 고순재 / 고영순 / 고용혁 / 고은화 / 고인용 / 고재만 고재용 / 고정민 / 고제상 / 고종섭 / 공경순 / 공영주 / 공의배 / 광노준 / 광명숙 / 광병철 / 광선훈 / 광순례 / 광옥경 / 광우영 / 광정순 / 광정신 / 광정화 / 구병춘 구본춘 / 구유희 / 구자영 / 구지현 / 구형자 / 구해진 / 구효숙 / 국영호 / 권경섭 / 권광우 / 권기중 / 권기현 / 권기형 / 권대진 / 권범윤 / 권성환 / 권순모 / 권순안 권순자 / 권순정 / 권영규 / 권영민 / 권오웅 / 권오일 / 권오중 / 권오필 / 권용금 / 권우식 / 권우택 / 권이수 / 권익주 / 권익진 / 권인애 / 권재일 / 권정의 / 권종희 권주빈 / 권주연 / 권진숙 / 권춘련 / 권태인 / 권태홍 / 권혁동 / 권혁면 / 권혁신 / 권혁용 / 권혁중 / 권혜언 / 금동순 / 기은정 / 길경수 / 길기남 / 김가희 / 김경규 김경래 / 김경숙 / 김경원 / 김경현 / 김경혜 / 김경희 / 김계선 / 김계진 / 김관 / 김관숙 / 김광일 / 김광자 / 김구용 / 김국수 / 김권기 / 김귀성 / 김규남 김규봉 / 김규진 / 김규태 / 김근 / 김근목 / 김근배 / 김근용 / 김근제 / 김근태 / 김근표 / 김기문 / 김기섭 / 김기준 / 김기창 / 김기철 / 김기태 / 김기현 / 김기형 김기호 / 김기환 / 김길성 / 김나연 / 김남기 / 김남길 / 김남진 / 김남포 / 김대성 / 김대용 / 김대우 / 김대현 / 김대홍 / 김덕순 / 김덕영 / 김도선 / 김도영 / 김도원
--

1-1-1 캠페인 기부자 (2013.7 ~ 2013.9)

김동규 / 김동기 / 김동백 / 김동석 / 김동수 / 김동엽 / 김동오 / 김동완 / 김동욱 / 김동익 / 김동일 / 김동진 / 김동현 / 김두용 / 김두한 / 김두호 / 김명수 / 김명숙 김명애 / 김명임 / 김명현 / 김명호 / 김명희 / 김모은 / 김문관 / 김문석 / 김미경 / 김미란 / 김미숙 / 김미여 / 김미옥 / 김미자 / 김미정 / 김민구 / 김민선 / 김민영 김민용 / 김민정 / 김범수 / 김병곤 / 김병기 / 김병동 / 김병섭 / 김병수 / 김병연 / 김병영 / 김병주 / 김병준 / 김병진 / 김보경 / 김봉렬 / 김봉식 / 김봉준 / 김봉춘 김삼영 / 김상권 / 김상동 / 김상만 / 김상선 / 김상섭 / 김상열 / 김상영 / 김상중 / 김상훈 / 김석경 / 김석훈 / 김선경 / 김선관 / 김선구 / 김선자 / 김선재 / 김선진 김선태 / 김성기 / 김성락 / 김성만 / 김성수 / 김성숙 / 김성순 / 김성실 / 김성우 / 김성조 / 김성중 / 김성현 / 김성희 / 김세득 / 김세영 / 김세철 / 김승암 / 김승운 김수기 / 김수영 / 김수용 / 김수진 / 김수철 / 김수현 / 김숙미 / 김숙희 / 김순복 / 김순태 / 김승권 / 김승규 / 김승만 / 김승복 / 김승애 / 김승우 / 김승욱 / 김승자 김승주 / 김승진 / 김승희 / 김시범 / 김시완 / 김시용 / 김시원 / 김시천 / 김신옥 / 김애숙 / 김애신 / 김아주 / 김양현 / 김연석 / 김연수 / 김연심 / 김연정 / 김연철 김연화 / 김영국 / 김영기 / 김영길 / 김영무 / 김영미 / 김영범 / 김영빈 / 김영서 / 김영석 / 김영선 / 김영소 / 김영수 / 김영숙 / 김영일 / 김영주 / 김영중 / 김영진 김영찬 / 김영천 / 김영화 / 김영환 / 김영희 / 김오남 / 김옥규 / 김옥유 / 김옥자 / 김옥진 / 김오용 / 김용각 / 김용갑 / 김용걸 / 김용경 / 김용구 / 김용국 / 김용근 김용기 / 김용석 / 김용수 / 김용운 / 김용태 / 김용환 / 김우원 / 김옥중 / 김운천 / 김웅기 / 김웅일 / 김원식 / 김유권 / 김유복 / 김유신 / 김윤기 / 김윤정 / 김윤주 김윤태 / 김윤택 / 김은석 / 김은숙 / 김은실 / 김은정 / 김은호 / 김은희 / 김용경 / 김익현 / 김익환 / 김인애 / 김일수 / 김장훈 / 김재근 / 김재문 / 김재용 / 김재웅 김재은 / 김재정 / 김재학 / 김재혁 / 김재현 / 김재호 / 김재환 / 김전금 / 김점분 / 김정구 / 김정권 / 김정두 / 김정목 / 김정수 / 김정숙 / 김정자 / 김정현 / 김정호 김정환 / 김정효 / 김제경 / 김종건 / 김종구 / 김종국 / 김종규 / 김종길 / 김종남 / 김종로 / 김종문 / 김종범 / 김종산 / 김종선 / 김종수 / 김종숙 / 김종오 / 김종완 김종원 / 김종준 / 김종철 / 김종현 / 김종화 / 김주래 / 김주봉 / 김주석 / 김주용 / 김주태 / 김주현 / 김주환 / 김준식 / 김준용 / 김준한 / 김준희 / 김중구 / 김지관 김지수 / 김지숙 / 김지양 / 김지혜A / 김지호 / 김지홍 / 김진경 / 김진근 / 김진명 / 김진성 / 김진수 / 김진안 / 김진영 / 김진우 / 김진원 / 김진현 / 김진호 / 김찬규 김찬우 / 김찬일 / 김찬호 / 김창규 / 김창균 / 김창길 / 김창식 / 김창옥 / 김창조 / 김창주 / 김창진 / 김창현 / 김창희 / 김찬원 / 김찬호 / 김철수 / 김철순 / 김철호 김춘계 / 김춘식 / 김춘재 / 김치구 / 김태경 / 김태식 / 김태안 / 김태연 / 김태영 / 김태욱 / 김태윤 / 김태일 / 김태출 / 김태훈 / 김판수 / 김동환 / 김필기 / 김학구 김학엽 / 김학철 / 김한규 / 김한복 / 김해옥 / 김항란 / 김한규 / 김현 / 김현기 / 김현덕 / 김현돈 / 김현섭 / 김현숙 / 김현식 / 김현실 / 김현옥 / 김현우 / 김현욱 김현정 / 김현호 / 김현희 / 김형근 / 김형선 / 김형수 / 김형식 / 김형우 / 김형준 / 김형택 / 김혜경 / 김혜선 / 김혜숙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용 / 김혜원 / 김호남 김호빈 / 김호섭 / 김호현 / 김홍규 / 김홍석 / 김홍숙 / 김홍순 / 김한욱 / 김희청 / 김효동 / 김효상 / 김효숙 / 김휘웅 / 김흥수 / 김흥식 / 김흥용 / 김희순 / 김희태 나귀연 / 나금옥 / 나가석 / 나명순 / 나영희 / 나은우 / 나중호 / 나창용 / 나창운 / 나창일 / 나태영 / 나혜란 / 남경택 / 남광희 / 남궁규태 / 남궁균 / 남보현 / 남상능 남상신 / 남승우 / 남현모 / 남현우 / 노기열 / 노동길 / 노동현 / 노민수 / 노병희 / 노성완 / 노성훈 / 노숙경 / 노영덕 / 노은숙 / 노정식 / 노천규 / 노학래 / 노현욱 노호균 / 노희정 / 도성재 / 도정열 / 도학순 / 라인옥 / 류무자 / 류상현 / 류성 / 류원대 / 류윤희 / 류재안 / 류종규 / 류지상 / 류지현 / 류창호 / 류홍천 / 마명섭 명재호 / 묵병균 / 묵익수 / 문경식 / 문경임 / 문관수 / 문광자 / 문명식 / 문명예 / 문순재 / 문연숙 / 문영준 / 문원길 / 문은표 / 문재경 / 문정욱 / 문창규 / 문혜원 문호진 / 문희봉 / 민병갑 / 민병구 / 민병도 / 민병윤 / 민병현 / 민오경 / 민정기 / 민종식 / 민준기 / 민준영 / 민찬규 / 민철기 / 박강서 / 박건수 / 박건용 / 박경란 박경수 / 박경시 / 박경준 / 박경현 / 박경호 / 박경희 / 박계선 / 박광배 / 박광준 / 박광훈 / 박관수 / 박근우 / 박기동 / 박기원 / 박기준 / 박기진 / 박기표 / 박기현 박기홍 / 박낙원 / 박노석 / 박능호 / 박대규 / 박대원 / 박동애 / 박동욱 / 박동진 / 박만규 / 박만진 / 박맹상 / 박면신 / 박명분 / 박명옥 / 박명자 / 박명희 / 박묘수 박무돈 / 박문산 / 박문순 / 박미도 / 박미랑 / 박미미 / 박미숙 / 박미희 / 박민경 / 박범식 / 박병균 / 박병남 / 박병서 / 박병윤 / 박병창 / 박병훈 / 박복순 / 박봉기 박삼순 / 박상기 / 박상보 / 박상신 / 박상오 / 박상욱 / 박상철 / 박상희 / 박선영 / 박선혜 / 박선화 / 박성숙 / 박성순 / 박성욱 / 박성준 / 박성진 / 박성철 / 박성환 박성희 / 박소영 / 박수경 / 박수용 / 박수진 / 박수택 / 박수희 / 박순례 / 박순식 / 박순연 / 박순웅 / 박승규 / 박승모 / 박승우 / 박시운 / 박신혜 / 박인태 / 박인홍 박애경 / 박연옥 / 박연희 / 박영근 / 박영동 / 박영만 / 박영미 / 박영복 / 박영석 / 박영선 / 박영수 / 박영신 / 박영원 / 박영준 / 박영철 / 박옥현 / 박완순 / 박용배 박용석 / 박용환 / 박우경 / 박우하 / 박원희 / 박유성 / 박윤서 / 박은녀 / 박은옥 / 박은주 / 박은희 / 박이우 / 박인규 / 박인기 / 박인숙 / 박일분 / 박일임 / 박재경 박재관 / 박재범 / 박재연 / 박재홍 / 박정식 / 박정애 / 박정욱 / 박정웅 / 박정원 / 박정자 / 박정훈 / 박종경 / 박종국 / 박종기 / 박종무 / 박종민 / 박종석 / 박종용 박종원 / 박종윤 / 박종채 / 박종춘 / 박종호 / 박종희 / 박주연 / 박주완 / 박중수 / 박지원 / 박찬욱 / 박찬웅 / 박찬효 / 박창동 / 박철 / 박철균 / 박철우 / 박춘화 박충림 / 박태웅 / 박태원 / 박판구 / 박학범 / 박해심 / 박혁 / 박현숙 / 박현실 / 박홍웅 / 박환창 / 박효순 / 박후상 / 박희진 / 박희태 / 변영무 / 변정호 / 변철희 방경원 / 방덕자 / 방병천 / 방성주 / 방재만 / 방재욱 / 방현천 / 배낙식 / 배명환 / 배미애 / 배미현 / 배범준 / 배성준 / 배수한 / 배수환 / 배영미 / 배영환 / 배학원 배현근 / 백경원 / 백남태 / 백병하 / 백선주 / 백선희 / 백설경 / 백연화 / 백용선 / 백용호 / 백윤기 / 백은주 / 백차현 / 범진환 / 변경수 / 변동진 / 변승환 / 변용석 변진욱 / 변철진 / 변태환 / 변혜경 / 변희진 / 복미숙 / 봉금희 / 봉래종 / 부춘성 / 사문운 / 서국동 / 서귀암 / 서기준 / 서매화 / 서명원 / 서문호 / 서병수 / 서보건
--

Donation List

1-1-1 캠페인 기부자 (2013.7 ~ 2013.9)

서보현 / 서복석 / 서봉현 / 서성택 / 서수한 / 서순영 / 서영덕 / 서원희 / 서유내 / 서은정 / 서은지 / 서재홍 / 서정남 / 서정원 / 서정현 / 서창범 / 서창희 / 서형탁
서화덕 / 서희정 / 석광열 / 석희덕 / 선수연 / 선영옥 / 선태득 / 설광수 / 설용훈 / 성경연 / 성금숙 / 성미옥 / 성선복 / 성익중 / 성인선 / 성점수 / 성향미 / 소귀섭
소민섭 / 소의영 / 소지은 / 손경아 / 손덕기 / 손동일 / 손두현 / 손미선 / 손보익 / 손석상 / 손순이 / 손순환 / 손응중 / 손재영 / 손정제 / 손정훈 / 손지영 / 손태식
손현숙 / 송경수 / 송경희 / 송근섭 / 송기상 / 송기수 / 송기정 / 송기찬 / 송기호 / 송명동 / 송명옥 / 송명중 / 송명철 / 송미숙 / 송미영 / 송병섭 / 송병원 / 송석희
송선옥 / 송성용 / 송수근 / 송수훈 / 송순임 / 송승용 / 송영우 / 송옥자 / 송완재 / 송용진 / 송용호 / 송윤희 / 송은주 / 송재경 / 송재규 / 송재길 / 송정미 / 송정석
송정원 / 송중례 / 송종식 / 송진호 / 송충숙 / 송치영 / 송현호 / 송혜영 / 송호영 / 송희상 / 송흥배 / 신경애 / 신경철 / 신길우 / 신동일 / 신동주 / 신동철 / 신동혁
신동희 / 신두철 / 신만재 / 신명수 / 신명호 / 신명희 / 신미경 / 신미정 / 신병우 / 신상기 / 신상운 / 신상진 / 신선희 / 신성은 / 신성철 / 신순옥 / 신승수 / 신영철
신용강 / 신우철 / 신옥 / 신윤섭 / 신응식 / 신의수 / 신재봉 / 신재수 / 신재숙 / 신재윤 / 신정섭 / 신정수 / 신정인 / 신정진 / 신정철 / 신정호 / 신중대 / 신준하
신준한 / 신준호 / 신중현 / 신창효 / 신태창 / 신현국 / 신현남 / 신현주 / 신형섭 / 신호연 / 신호준 / 심관용 / 심대성 / 심동섭 / 심우성 / 심우영 / 심용섭 / 심인석
심재국 / 심정철 / 심준기 / 안규세 / 안기홍 / 안남옥 / 안대근 / 안동현 / 안명섭 / 안미선 / 안미연 / 안병립 / 안병수 / 안병식 / 안병열 / 안병철 / 안상수 / 안선미
안선호 / 안성화 / 안송숙 / 안순일 / 안영선 / 안영찬 / 안영환 / 안예환 / 안은옥 / 안익호 / 안재성 / 안재영 / 안재현 / 안재환 / 안재희 / 안정열 / 안정철 / 안정표
안자연 / 안창영 / 안창조 / 안철순 / 안치규 / 안태훈 / 안현남 / 안현숙 / 안혜영 / 안호영 / 안홍정 / 안희찬 / 양광모 / 양광하 / 양국현 / 양기천 / 양기태 / 양남미
양덕호 / 양문모 / 양미령 / 양민수 / 양병용 / 양병호 / 양병식 / 양성식 / 양승권 / 양승렬 / 양승석 / 양시영 / 양애영 / 양영재 / 양원석 / 양윤정 / 양익주 / 양인식
양재현 / 양정안 / 양찬규 / 양춘수 / 양현덕 / 양호진 / 양희창 / 양희경 / 양희문 / 양희성 / 양희찬 / 어경임 / 어승규 / 어윤하 / 엄경식 / 엄경이 / 엄민희 / 엄애현
엄재득 / 엄정완 / 엄태문 / 엄태호 / 엄항남 / 여각동 / 여철현 / 연규봉 / 연혜숙 / 염경호 / 염동일 / 염병국 / 염성현 / 염우영 / 예홍진 / 오경아 / 오경윤 / 오경호
오귀석 / 오귀훈 / 오대지 / 오동근 / 오란석 / 오명숙 / 오명순 / 오미정 / 오민자 / 오병량 / 오상경 / 오상근 / 오상탁 / 오성원 / 오성호 / 오세태 / 오수기 / 오순아
오엽표 / 오영권 / 오영숙 / 오영태 / 오영택 / 오영호 / 오왕모 / 오용인 / 오은경 / 오은영 / 오인숙 / 오재영 / 오정락 / 오정애 / 오주심 / 오주영 / 오준서 / 오창준
오창현 / 오태근 / 오택원 / 오현숙 / 오현우 / 오형철 / 오형택 / 오호영 / 왕남원 / 왕영숙 / 왕세중 / 왕은희 / 우동석 / 우병주 / 이상옥 / 이상혁 / 우인석 / 우용재
우은경 / 우은미 / 우재영 / 우정석 / 우종채 / 우중균 / 우창완 / 우춘섭 / 우효정 / 원성화 / 원용석 / 원윤희 / 원주경 / 원치호 / 위규범 / 위정식 / 위홍환 / 유갑진
유경호 / 유경화 / 유경희 / 유권중 / 유기상 / 유덕기 / 유동문 / 유명호 / 유문숙 / 유병대 / 유상근 / 유상열 / 유상원 / 유성렬 / 유성재 / 유승선 / 유승화 / 유시대
유연창 / 유영미 / 유영숙 / 유영애 / 유영혜 / 유옥순 / 유용수 / 유용식 / 유인봉 / 유인상 / 유재권 / 유재석 / 유재웅 / 유진원 / 유철형 / 유충상 / 유태근 / 유태현
유한석 / 유현준 / 유혜주 / 유호상 / 유효순 / 유희석 / 육현민 / 윤광석 / 윤기원 / 윤도원 / 윤명범 / 윤민경 / 윤상억 / 윤상중 / 윤석열 / 윤석희 / 윤선희 / 윤성택
윤성희 / 윤순영 / 윤순장 / 윤승원 / 윤승현 / 윤연숙 / 윤영옥 / 윤영주 / 윤영화 / 윤용식 / 윤원식 / 윤은경 / 윤인명 / 윤인성 / 윤인수 / 윤장희 / 윤재덕 / 윤재승
윤정용 / 윤종엽 / 윤종일 / 윤종찬 / 윤주용 / 윤중근 / 윤진 / 윤진미 / 윤진숙 / 윤춘기 / 윤학근 / 윤현철 / 윤혜경 / 윤혜정 / 윤황 / 은미희 / 은유진 / 이강기
이강숙 / 이강준 / 이강현 / 이건화 / 이경복 / 이경석 / 이경섭 / 이경애 / 이경우 / 이경재 / 이경중 / 이경중 / 이경현 / 이경호 / 이계상 / 이계수 / 이계주 / 이광노
이광미 / 이광용 / 이광중 / 이광호 / 이광희 / 이교범 / 이국재 / 이군재 / 이규봉 / 이규철 / 이규환 / 이근석 / 이금례 / 이금숙 / 이기근 / 이기명 / 이기복 / 이기선
이기섭 / 이기영 / 이기중 / 이기홍 / 이기훈 / 이난희 / 이대범 / 이대현 / 이도경 / 이도섭 / 이도항 / 이동규 / 이동기 / 이동렬 / 이동성 / 이동열 / 이동용 / 이동원
이동진 / 이동호 / 이만기 / 이만성 / 이명길 / 이명운 / 이명원 / 이명자 / 이명주 / 이명호 / 이문근 / 이문상 / 이문수 / 이문희 / 이미경 / 이미나 / 이미영 / 이미옥
이미자 / 이민경 / 이민선 / 이민섭 / 이민우 / 이민자 / 이민호 / 이범식 / 이병규 / 이병근 / 이병기 / 이병대 / 이병선 / 이병엽 / 이병옥 / 이병조 / 이병호 / 이보경
이보구 / 이보미 / 이보영 / 이보형 / 이복실 / 이복훈 / 이봉석 / 이부영 / 이분열 / 이삼근 / 이삼주 / 이상 / 이상국 / 이상권 / 이상규 / 이상미 / 이상민 / 이상범
이상성 / 이상순 / 이상신 / 이상아 / 이상엽 / 이상운 / 이상원 / 이상천 / 이상철 / 이상현 / 이상훈 / 이석원 / 이석현 / 이선미 / 이선이 / 이선형 / 이선희 / 이상근
이성빈 / 이성숙 / 이성식 / 이성아 / 이성엽 / 이성우 / 이성운 / 이성윤 / 이성주 / 이성현 / 이성희 / 이송호 / 이수영 / 이수진 / 이수형 / 이숙향 / 이순성 / 이순아
이순영 / 이순태 / 이순택 / 이승구 / 이승근 / 이승미 / 이승우 / 이승제 / 이승현 / 이승희 / 이신형 / 이양희 / 이연강 / 이연순 / 이연희 / 이영경 / 이영국 / 이영규
이영록 / 이영미 / 이영범 / 이영석 / 이영수 / 이영옥 / 이영일 / 이영창 / 이영철 / 이영학 / 이영현 / 이영호 / 이예리 / 이옥란 / 이옥자 / 이왕형 / 이용로 / 이용복
이용수 / 이용옥 / 이용운 / 이용훈 / 이우암 / 이우영 / 이운갑 / 이운호 / 이원기 / 이원중 / 이원찬 / 이윤정 / 이윤중 / 이윤진 / 이윤희 / 이은 / 이은경 / 이은규
이은성 / 이은숙 / 이은영 / 이은주 / 이은형 / 이은호 / 이은희 / 이응정 / 이응표 / 이인규 / 이인수 / 이인순 / 이인풍 / 이인호 / 이일주 / 이자성 / 이장근 / 이재권
이재길 / 이재덕 / 이재려 / 이재민 / 이재성 / 이재순 / 이재양 / 이재옥 / 이재용 / 이재은 / 이재의 / 이재평 / 이정돈 / 이정란 / 이정복 / 이정상 / 이정수 / 이정순
이정신 / 이정심 / 이정옥 / 이정우 / 이정원 / 이정인 / 이정재 / 이정준 / 이정철 / 이정태 / 이정현 / 이정호 / 이정환 / 이정후 / 이정훈 / 이재현 / 이준근 / 이중섭
이중연 / 이중오 / 이중용 / 이중옥 / 이중원 / 이중응 / 이종일 / 이종주 / 이종찬 / 이종태 / 이종현 / 이종훈 / 이주연 / 이주환 / 이준섭 / 이준수 / 이준영 / 이준은
이준호 / 이지복 / 이지상 / 이지숙 / 이자연 / 이지원 / 이지현 / 이진석 / 이진선 / 이진용 / 이진우 / 이진호 / 이진희 / 이찬영 / 이창란 / 이창수 / 이창우 / 이창원

이창환 / 이창훈 / 이재우 / 이철기 / 이충균 / 이충식 / 이충용 / 이치인 / 이태운 / 이태원 / 이태재 / 이태희 / 이택형 / 이평애 / 이평천 / 이필홍 / 이하영 / 이한구
이한규 / 이한록 / 이한석 / 이한식 / 이한영 / 이해남 / 이해준 / 이항길 / 이항숙 / 이항희 / 이현규 / 이현명 / 이현상 / 이현실 / 이현옥 / 이현주 / 이현진 / 이현택
이현행 / 이형모 / 이형무 / 이형민 / 이형식 / 이형익 / 이형천 / 이형표 / 이혜경 / 이혜순 / 이혜옥 / 이호근 / 이호중 / 이화 / 이화배 / 이화수 / 이화숙 / 이회영
이호순 / 이효식 / 이효철 / 이휘동 / 이홍수 / 이희강 / 이희연 / 이희영 / 인정근 / 임경빈 / 임관목 / 임근찬 / 임기영 / 임동규 / 임동수 / 임동하 / 임명재 / 임명훈
임모환 / 임문재 / 임미옥 / 임민호 / 임병국 / 임병엽 / 임봉길 / 임석배 / 임석주 / 임석철 / 임선옥 / 임성옥 / 임양미 / 임영교 / 임영무 / 임영준 / 임옥순 / 임용백
임윤희 / 임인경 / 임인섭 / 임인숙 / 임인재 / 임재성 / 임재수 / 임재익 / 임정애 / 임정혁 / 임종규 / 임종석 / 임종섭 / 임종현 / 임종선 / 임종환 / 임지석 / 임지영
임창건 / 임창규 / 임채숙 / 임채원 / 임채정 / 임춘기 / 임춘섭 / 임춘성 / 임춘식 / 임태규 / 임평옥 / 임현 / 임홍식 / 임화선 / 장경옥 / 장공진 / 장광열 / 장균
장기순 / 장도영 / 장병윤 / 장병정 / 장봉희 / 장상만 / 장석일 / 장석진 / 장선규 / 장선의 / 장성천 / 장세덕 / 장양남 / 장영수 / 장용석 / 장용창 / 장용호 / 장우진
장윤성 / 장주형 / 장준교 / 장준복 / 장준석 / 장준순 / 장지선 / 장작순 / 장진엽 / 장혜영 / 장호 / 장희철 / 전경남 / 전근열 / 전도수 / 전두수 / 전명수 / 전명자
전미영 / 전병수 / 전상수 / 전성일 / 전성표 / 전성환 / 전수정 / 전승민 / 전승준 / 전영목 / 전영옥 / 전용현 / 전용호 / 전우석 / 전재현 / 전정옥 / 전정조 / 전지영
전진수 / 전창규 / 전현수 / 전현숙 / 전형우 / 정경호 / 정경희 / 정구영 / 정구창 / 정규범 / 정규순 / 정규하 / 정근희 / 정기석 / 정기승 / 정기정 / 정기현 / 정기훈
정남오 / 정대중 / 정동민 / 정동석 / 정동열 / 정두연 / 정명신 / 정문규 / 정문기 / 정미경 / 정미숙 / 정민호 / 정방근 / 정복길 / 정봉석 / 정상정 / 정서진 / 정선교
정성윤 / 정성환 / 정성희 / 정세훈 / 정순영 / 정순임 / 정승화 / 정애경 / 정양민 / 정양원 / 정양호 / 정양희 / 정연광 / 정연영 / 정연옥 / 정연호 / 정연훈 / 정영옥
정영채 / 정옥지 / 정완식 / 정왕진 / 정요엘 / 정용희 / 정윤규 / 정유찬 / 정윤석 / 정윤태 / 정의대 / 정이숙 / 정인수 / 정인하 / 정일구 / 정일한 / 정재기 / 정재명
정점래 / 정정문 / 정종권 / 정주호 / 정준 / 정준모 / 정창경 / 정창용 / 정태선 / 정태화 / 정한웅 / 정해근 / 정해연 / 정해옥 / 정해준 / 정현숙 / 정현용 / 정혜림
정혜원 / 정혜인 / 정호운 / 정홍구 / 정효숙 / 정희교 / 정희자 / 정희진 / 조강래 / 조걸훈 / 조경숙 / 조경제 / 조광국 / 조광순 / 조규열 / 조규영 / 조규태 / 조기홍
조길원 / 조동식 / 조두진 / 조명구 / 조명순 / 조무창 / 조문준 / 조병승 / 조병태 / 조병환 / 조봉원 / 조성만 / 조성철 / 조성태 / 조수진 / 조순명 / 조양숙 / 조연제
조영록 / 조영상 / 조영석 / 조영호 / 조영환 / 조완익 / 조완호 / 조용백 / 조우현 / 조원규 / 조원자 / 조원주 / 조윤진 / 조은경 / 조은숙 / 조은정 / 조익수 / 조익환
조재용 / 조재형 / 조재환 / 조정숙 / 조정한 / 조중순 / 조중용 / 조중열 / 조중환 / 조진선 / 조총희 / 조하연 / 조한덕 / 조한식 / 조해성 / 조현수 / 조현옥 / 조현우
조현주 / 조형규 / 조혜성 / 조혜정 / 조환 / 조환명 / 조희형 / 주광진 / 주기영 / 주동준 / 주민규 / 주영천 / 주일로 / 주창우 / 주창원 / 주필상 / 지승구 / 지승렬
지영교 / 지찬원 / 지춘수 / 지호연 / 진경년 / 진광선 / 진명주 / 진명철 / 진성호 / 진영란 / 진주현 / 차권자 / 차명도 / 차미희 / 차상훈 / 차선희 / 차영선 / 차영주
차충근 / 차환윤 / 채경우 / 채규창 / 채석환 / 채영호 / 채일 / 천명길 / 천순자 / 천승락 / 최경해 / 최경희 / 최관수 / 최광식 / 최규선 / 최근배 / 최근실 / 최근호
최금숙 / 최기막 / 최기원 / 최기혁 / 최길수 / 최길자 / 최도선 / 최만조 / 최만중 / 최명규 / 최모석 / 최문규 / 최문호 / 최미영 / 최병국 / 최병무 / 최복희 / 최상돈
최상범 / 최상한 / 최선정 / 최성남 / 최성달 / 최성순 / 최수도 / 최수연 / 최수영 / 최순식 / 최순자 / 최승권 / 최승순 / 최승윤 / 최시현 / 최신영 / 최영국 / 최영길
최영남 / 최영두 / 최영락 / 최영수 / 최영실 / 최영재 / 최영태 / 최영호 / 최옥분 / 최용준 / 최용호 / 최우용 / 최원덕 / 최원신 / 최원진 / 최유미 / 최윤 / 최윤순
최윤영 / 최윤용 / 최윤호 / 최윤희 / 최용현 / 최은정 / 최은희 / 최용선 / 최익규 / 최익선 / 최인자 / 최인태 / 최재근 / 최재승 / 최재은 / 최재필 / 최재혁 / 최재효
최점례 / 최정민 / 최정영 / 최정주 / 최중엽 / 최중우 / 최중옥 / 최중성 / 최중영 / 최중원 / 최중호 / 최진구 / 최진미 / 최진형 / 최창기 / 최창식 / 최춘석 / 최충현
최태영 / 최태현 / 최하영 / 최학철 / 최현아 / 최형경 / 최홍근 / 최희선 / 추동욱 / 추병윤 / 추호석 / 탁현배 / 편재필 / 편중훈 / 편홍일 / 표준상 / 하상옥 / 하영화
하치환 / 한경화 / 한경희 / 한관희 / 한광남 / 한군희 / 한기자 / 한기홍 / 한다예 / 한명희 / 한민규 / 한봉희 / 한상란 / 한상옥 / 한상준 / 한상철 / 한석근 / 한석봉
한석분 / 한성준 / 한성희 / 한승엽 / 한승호 / 한연란 / 한영민 / 한영석 / 한영엽 / 한운수 / 한윤희 / 한은구 / 한재광 / 한정숙 / 한종인 / 한진희 / 한창근 / 한태규
한형욱 / 한호 / 한화영 / 한효식 / 한희영 / 함건주 / 함경숙 / 함정 / 함정화 / 함형미 / 함형이 / 함효준 / 허경숙 / 허근무 / 허기영 / 허남태 / 허려화 / 허문희
허미성 / 허석수 / 허성철 / 허연수 / 허인영 / 허정미 / 허준 / 허택만 / 허로무 / 현남주 / 현서광 / 현석무 / 현수 / 현연식 / 현정분 / 현정은 / 현희숙 / 호정화
홍권성 / 홍권희 / 홍기영 / 홍기택 / 홍남진 / 홍대의 / 홍덕표 / 홍만표 / 홍민철 / 홍범준 / 홍보영 / 홍봉숙 / 홍성표 / 홍성기 / 홍성수 / 홍성호 / 홍세경 / 홍수정
홍순갑 / 홍순자 / 홍순희 / 홍승범 / 홍영수 / 홍영숙 / 홍원기 / 홍은경 / 홍민철 / 홍재문 / 홍재철 / 홍중필 / 홍진선 / 홍충식 / 홍혜린 / 황경애 / 황교민 / 황교숙
황금철 / 황기순 / 황대성 / 황덕모 / 황동선 / 황두성 / 황란영 / 황명수 / 황미라 / 황민숙 / 황민하 / 황병철 / 황보성학 / 황선관 / 황선영 / 황성옥 / 황수연 / 황순석
황순연 / 황안일 / 황영순 / 황영진 / 황영희 / 황우식 / 황원복 / 황원선 / 황의경 / 황의청 / 황인국 / 황조원 / 황진규 / 황진연 / 황진영 / 황찬원 / 황충국 / 황태선

(주)경봉 / (주)나노렉스 / (주)성호스텐 / (주)세인 / (주)에이피피 / (주)이포넷 / 대양코퍼레이션(주) / 미래공조(주) / 바이더웨이 수유분점 / 보광토탈이엔지(주) / 비티
에스경영컨설팅 / 선내과의원 / 세이프건설(주) / 싸유 영천동부점 / 에스피티 / 영통 수정형외과 의원 / 유티정보(주) / 제일합판상사 / 주식회사 세인코스 / 주식회사
엔에프씨 / ㈜임파크 / ㈜한국푸앤크 / 창성열처리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한 호__ 입학처장



9월부터 대학 입학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는 수시 1차(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및 수시 2차(논술 전형)를 동시에 접수받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록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느라 여념이 없다. 수능시험 성적을 주요 근거로 하는 정시모집과는 달리 수시모집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과 인성 등을 객관화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고 아주대학교의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꿈을 향한 열정 또한 확실한 학생들을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교를 거치며 진정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초보적인 문화인류학적 관찰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국가적으로 아이들이 ‘잘 하는 것’을 찾도록 독려하는 시스템과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그 둘 모두를 바라기 어려운 환경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젊은이가 가업(家業)을 이어 명품의 만연에 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3대를 이어온 우동집, 수십 년의 훈련을 통해 장인이 된 기술자 등이 많이 탄생하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 같은 사회구조에서는 대체로 ‘잘’ 하도록 훈련을 받고 개인보다는 조직의 최선에 따르도록 하는 압박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조직의 안정과 전체주의적 선택보다 우선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고 이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사회환경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잘 나오지 않지만 좋아하는 일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진하여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떠한가? 치열한 경쟁구도에서의 생존,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의 성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 개인이 무엇을 잘 하고 또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여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콘텐츠를 가장 잘 학습한 사람들만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들이 가장 행복한 집단인 것으로 비쳐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을 통해 그나마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하는 역류효과(washback effect)가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 기회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수시전형이 때로는 객관적 준거의 부족으로 무질서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획일적인 한국 교육의 틀을 바꾸는 데는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개인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이 잘 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의식과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번에 아주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도 부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첨언 :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이분법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자신이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같아서 행복감이 매우 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잘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다. 매우 고민스런 질문이다. 궁색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내놓는 대답은 먼저 잘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즐기라는 것이다.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몫이다. 정답이 없음이 자유로운 사고의 출발이라는 확신이 있으므로.



Love is, above all else, the gift of oneself

1-1-1 캠페인

- 사랑스런 후배의 멘토가 되어 가슴 속에 자리합니다.
1-1-1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시는 장학금은 철저히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돌아갑니다.
십시일반 모인 정성은 매학기 ‘1-1-1 장학금’으로 후배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 미래의 자랑스런 아주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 선·후배간의 따뜻한 교류가 희망찬 ‘아주공동체’를 열어갑니다.



전 화 : 031-219-2107~9, 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인터넷 : 대학발전본부 홈페이지 (<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이메일 : ajousarang@ajou.ac.kr 로 약정의사 표시

팩 스 : 031-219-1623으로 약정서 송부

CMS 자동이체 :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참여(세부사항 전화문의)

자은 전서이 모어 마드 크 사라 1-1-1 캠페이으로 후배사라이 가까운지니다 기부금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되니다